gil 길
good in life

리듬을 지킨다는 것

우리의 하루는 저마다의 리듬 속에서 이어집니다.
그 모든 순간을 한결같은 박동으로 지켜주는 심장처럼, 건강한 삶의 리듬 역시
일상의 균형을 지키고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동국대학교의료원
dongguk university medical center

gil

2026
autumn
vol.48

03
Intro
소심한 일탈

04
Theme
리듬을 지킨다는 것

08
Good Doctor
1일 10만 번의
심장박동을 지키는
30년의 동반자

12
Health 1
구멍 난 심장에서
좁아진 판막까지,
이제는 이렇게 치료합니다

14
Health 2
막힌 심장혈관을 넓히는
희망의 길,
관상동맥 스텐트 시술

16
Health 3
'체한 줄 알았어요'
심장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

18
Health 4
내 심장은 건강할까요?
심장 검사 바로 알기

20
Health 5
심장이 멈춘 순간,
누구나 알아야 할
응급처치!

22
Korean Medicine
가슴 두근거림
왜 생길까요?

24
Focus 1
30년의 신뢰,
미래 한의학을 열다

28
Focus 2
'처음 오셨나요?'
첫 방문 환자 전용 창구

30
Team
동국대학교경주병원
지역협력연계팀

32
Essay
달님에게 소원을 비는
풍성한 한가위

34
Temple
바다를 마당으로
품은 절

38
Law
누수 피해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40
Book
저는 왜 이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할까요

42
News
동국대학교의료원
뉴스

45
Donation
보시공덕

발행인 이해원 **발행처** 동국대학교의료원 **발행일** 2026년 9월 1일 (통권 48호)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27 **대표전화** 1577 · 7000 **기획 · 편집 · 디자인** 동국대학교의료원 편집위원회

소심한 일탈

'FM'대로 반듯하게 사는 지인이 어느 날 문득 자신이 답답해 보이더랍니다. 틀을 깨볼 방법을 고민하며 걷는데, 자로 잰 듯 똑바른 자신의 발걸음이 눈에 들어왔다지요. 순간 보도블록의 직선을 슬쩍 벗어나 발끝으로 툭툭 리듬을 타며 가볍게 스텝을 밟았답니다. 즉흥적으로 음을 흥얼거리면서요. 쏟아지는 빗속에서 우산을 접고 탭댄스를 추던 영화 <싱잉 인 더 레인> 속 진 켈리처럼요. 그다운 소심한 일탈이었지요.

오래전 베트남에 처음 갔을 때 마주한 도로 풍경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중앙선도, 신호등도 촘촘하지 않아 금방이라도 사고가 날 것만 같은데 자동차와 오토바이, 그리고 행인들이 서로를 절묘하게 피해 가며 물 흐르듯 움직이더라고요. 날카로운 경적을 울리며 다투기보다 조금씩 속도를 줄이고, 틈을 내어주고, 상대의 움직임을 읽으며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신기하기까지 했지요. 처음에는 그저 아슬아슬한 무질서로 보였지만 한참 바라보고 있자니 그 안에는 누구도 지휘하지 않는 질서, 서로를 배려하며 만들어낸 리듬이 흐르고 있더군요.

우리의 몸도 그렇지요. 심장은 규칙적으로 뛰지만 상황에 따라 빨라지기도, 느려지기도 합니다. 걸을 때와 쉴 때, 기쁠 때와 긴장할 때 박동이 저마다 다르지요. 몸의 요구에 맞춰 속도를 조절하는 거지요. 건강이란 한 치의 오차도 없는 기계적인 규칙이 아니라, 삶의 변화에 맞춰 자연스럽게 균형을 찾아가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는 세상의 기준뿐 아니라 스스로의 기준에도 자신을 너무 엄격하게 맞추곤 하지요. 살짝 구부러져도, 선을 조금 벗어나도 괜찮을 텐데 말이지요. 오늘 하루, 고정된 일상에 나만의 작은 리듬을 더해 보세요. 흥얼거림 하나, 느린 걸음 하나, 익숙한 길을 살짝 벗어나는 소심한 일탈 하나면 충분합니다. 삶도 저마다의 리듬을 찾을 때 더 건강해질 테니까요.

리듬을 지킨다는 것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며
수많은 리듬 속에 존재한다.

어쩌면 심장은 삶에 대한
가장 좋은 비유일지 모른다.

아침에 눈을 뜨는 시간,
출근길의 발걸음,
점심시간의 짧은 휴식,
가족과 나누는 저녁 식사.
의식하지 못할 뿐 우리의 삶은
언제나 일정한 박자 위에서
움직인다. 하루의 반복은
단순한 습관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저마다의 질서와
흐름이 존재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 리듬 속에서
살아가며 자신만의 삶을
만들어 간다.

음악이 아름다운 이유는
음표 때문만이 아니다.
음과 음 사이의 간격,
빠름과 느림,
쉼과 흐름이 어우러질 때
비로소 하나의 선율이
완성된다. 삶도 마찬가지다.
쉬지 않고 달리기만 하는
삶은 결국 지치고,
멈춤만 있는 삶은 앞으로
나아가기 어렵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균형이며, 경쟁이 아니라
자신만의 리듬을 유지하는
일이다.

자연은 오래전부터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여름에는 푸르게 자라며,
가을에는 결실을 맺고,
겨울에는 잠시 쉬어간다.
어느 계절도 자신의 순서를
앞당기려 하지 않는다.
자연은 서두르지 않지만
결코 늦지도 않는다.
각자의 시간을 존중하며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한다.

인간의 삶도 본래는
그러했을 것이다.
성장해야 할 때 성장하고,
도전해야 할 때 도전하며,
쉬어야 할 때 쉬는 것.
그러나 현대의 우리는 종종
자신의 리듬보다 세상의
속도에 맞추어 살아간다.
더 빨리 가야 하고,
더 많이 이루어야 하며,
더 바쁘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느새 '잘 사는
것'보다 '바쁘게 사는 것'에
익숙해진 것은 아닐까.

우리 몸은 이러한 사실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에도 리듬이
있고, 잠들고 깨어나는
시간에도 리듬이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평생
동안 멈추지 않고
이어지는 심장의 리듬이
있다.

심장은 참 묘한 존재다.
우리는 그 존재를 거의
의식하지 못한다.
그러나 심장은 단 한순간도
자신을 쉬게 하지 않는다.
기쁜 순간에는 조금 빠르게,
편안한 순간에는 조금
느리게 뛰면서도 결국
자신의 균형을 찾아간다.
상황에 따라 변화하지만
본질을 잃지 않는 것이다.

흔들리는 일상 속에서도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너무 엄격하다.
조금 쉬면 뒤처질 것 같고,
잠시 멈추면 실패한 것처럼
느낀다. 그러나 자연은
쉼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겨울이 있어야 봄이 오고,
밤이 있어야 아침이 찾아온다.
삶에도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빠르게 달려야 하는 시기가
있다.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때도 있고, 중요한 목표를
향해 온 힘을 쏟아야 하는
순간도 있다. 반대로 멈춰
서야 하는 때도 있다.
실패를 경험하거나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나면 잠시
숨을 고르게 된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은 삶의
일부이며, 어느 하나만으로
인생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심장이 빠르게 뛰는
순간만으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듯이, 인생도 끊임없는
전진만으로는 지속될 수 없다.
쉼은 게으름이 아니라 다음
걸음을 위한 준비이며,
느림은 뒤처짐이 아니라
균형을 되찾는 과정이다.

건강 역시 특별한 비결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거창한 목표나 극적인
변화보다 중요한 것은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들이다.
제시간에 식사하고,
충분히 잠을 자고,
몸을 움직이고,
때로는 하늘을 올려다볼
여유를 갖는 것.
너무 평범해서 쉽게
지나치지만, 사실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것은
그런 사소한 일들이다.

나만의 박자를 잃지 않는 삶

삶을 돌아보면 행복은
평범한 하루 속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
가족과 함께한 식사,
친구와의 짧은 대화,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
무사히 하루를 마친 저녁의
안도감. 그런 순간들이 모여
인생이라는 긴 이야기를
만들어 낸다.

심장은 오늘도 묵묵히 뛰고
있다. 한 번의 박동이 다음
박동으로 이어지고,
그 수많은 순간이 모여
하루가 되고 한 해가 되며
결국 한 사람의 인생이 된다.

너무 빠르지도,
너무 느리지도 않게.
때로는 힘차게,
때로는 차분하게.
자신의 속도와 균형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삶의 리듬을
지킨다는 의미일 것이다.

삶은 결국 저마다의
리듬을 따라 흐른다.
그리고 그 리듬을
지킨다는 것은
오늘을 충실히 살아내고
내일을 준비하며
자신을 아끼는 가장
조용하고도 깊은
방법인지 모른다.

1일 10만 번의 심장박동을 지키는 30년의 동반자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심장내과
이은미 교수는 수만 명의 심장 소리를
진단해 온 심장내과 분야의
베테랑 전문의다.
생사의 기로에 선 환자들에게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며
환자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살피는
이은미 교수를 만나보았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심장내과
이은미 교수

누구에게나 인생의 행로를 결정짓는 운명적인 순간이 있다. 이은미 교수에게는 대학 예과 시절 마주했던 가슴 아픈 이별이 그러했다. 평소 좋아했던 지인이 갑작스러운 심장 돌연사로 세상을 떠난 것이다.

"심장이라는 장기는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토록 무자비하게 삶을 앗아가고, 남은 이들에게 감당하기 힘든 아픔을 남기는 걸까 하는 깊은 의문과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 슬픔과 질문이 저를 자연스럽게 심장전문의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심장의 비밀을 풀기 위해 청진기를 잡은 지 30년. 수많은 환자의 심장 소리를 들어온 이 교수는 세월이 선물한 깊은 연륜을 몸소 보여주고 있다. 젊은 시절에는 의학적 지식과 기술에 집중하며 눈앞의 '질병' 자체를 바라보려 애썼다면, 이제는 그 병을 앓고 있는 '환자'의 삶과 심리 상태가 먼저 눈에 들어온다.

"젊었을 때는 지식이 부족해 병만 보였다면, 이제는 병을 가진 환자가 보입니다. 가슴이 답답하다며 찾아온 환자의 얼굴에서 질병의 징후뿐 아니라 그 이면에 가려진 불안과 두려움까지 읽어내고 다독여 줄 수 있는 안목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환자들에게 '저 정도면 살아가는 데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라고 따뜻한 확신을 건넬 수 있는 여유도 생겼습니다."



미세한 틈을 찾아내는 정교한 눈과 노하우

심장내과는 시술을 중심으로 하는 분야와 정밀 검사를 통해 심장 기능을 평가하는 분야로 나뉜다. 이은미 교수의 전문 분야는 후자다. 하루 10만 번 뛰는 심장의 미세한 이상을 찾아내는 그는 특히 심장초음파 분야의 베테랑으로 꼽힌다.

타인이 놓치기 쉬운 작은 이상이나 초기 심부전의 징후까지 정교하게 읽어내다 보니, 개인 병원에서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이나 원인을 알 수 없는 호흡곤란, 실신 등을 겪는 환자들이 그를 찾아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을 찾는다. 최근에는 인공지능(AI)이 심전도를 판독할 만큼 기술이 발전했지만, 이 교수는 기계가 결코 대신할 수 없는 '의사의 직관과 경험'이 존재한다고 강조한다.



"AI가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최종 판단을 내리고 책임지는 것은 결국 의사의 몫입니다. 기계가 잡아내지 못하는 미묘한 파형의 변화와 환자의 임상적 상황을 종합해 내리는 진단의 완성도는 오랜 경험에서 나옵니다."

고혈압의 위협, 젊은 세대의 인식을 깨우다

우리나라 30세 이상 성인의 약 30%는 고혈압을 앓고 있다. 다행히 이 가운데 적절히 조절되는 비율은 약 60%로, 이웃 나라 일본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관리율을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경각심을 늦출 수 없는 질환이다. 고혈압은 유전적 요인과 생활습관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대표적인 만성질환이다.

최근 환자들은 AI와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의학 정보를 접한 뒤 병원을 찾는다. 고령 환자들은 약물치료의 중요성을 잘 이해하고 꾸준히 복용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진짜 문제는 20~30대 젊은 고혈압 환자들이다. 자신이 고혈압이라는 사실조차 모르거나, 알고도 치료를 미루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젊은 환자들이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인식하고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돕는 것이 제게 주어진 중요한 사명 중 하나입니다. 약을 꾸준히 복용하는 것만으로도 미래의 치명적인 심혈관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교수가 깊은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분야는 비만을 동반한 젊은 연령 고혈압, 그리고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이다. 임신성 고혈압이나 임신 중독증을 경험한 산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는 고혈압 유병률이 약 13%에 이른다. 연간 약 23만 명의 신생아가 태어나는 우리나라에서 약 10%는 임신성 고혈압의 영향을 받은 임신에서 출생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에 대한 조기 예방과 체계적인 관리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생사의 기로, 흔들림 없는 결단의 리더십

심부전으로 호흡곤란을 겪는 환자들은 언제나 응급실과 병동을 긴장 상태로 만든다. 예측할 수 없는 호출이 주는 중압감은 심장내과 의사의 숙명이지만, 이 교수는 이를 사명감으로 받아들인다.

"나의 즉각적인 판단과 신속한 결정이 한 사람의 생사와 직결됩니다. 그렇기에 환자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순간일수록 더욱 차분하고 단호해야 합니다. 결코 우물쭈물하는 '햄릿'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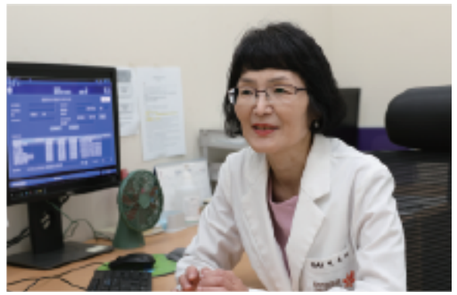
그의 결단력이 환자의 생명을 살린 순간은 셀 수 없이 많다. 오래도록 심장병으로 고통받던 환자를 끈질기게 추적한 끝에 희귀 난치성 질환인 '심장 아밀로이드증'을 정확히 진단해 내기도 했다. 의사의 집요한 노력이 환자의 남은 삶을 바꾼 순간이었다.

또 다른 사례는 소화가 잘되지 않는다며 가벼운 마음으로 소화기내과를 찾았던 40대 초반 여성 환자였다. 혈압이 높아 심장내과 협진이 의뢰됐고, 증상이 다소 모호했지만 정밀검사를 추가로 시행한 결과 치명적인 '대동맥 박리증'으로 확인됐다. 당시 환자는 어린 자녀를 차에 태운 채 직접 운전해 병원을 찾은 상태였다. 평소 방치했던 고혈압이 혈관이 찢어지는 대동맥 박리로 이어진 아찔한 상황이었지만, 이 교수의 빠른 판단과 대처 덕분에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

마음을 알아주는 의사, 끝내 생명을 지켜내는 의사

이 교수는 "증상이 없다고 해서 병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한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비만과 같은 만성질환은 평소 아무런 통증을 주지 않지만,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나 대동맥 박리라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가족력이 있는 사람들은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병원을 피하는 경우가 많은데, 유전자 검사와 정기검진 등을 통해 자신의 상태를 미리 확인하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국가건강검진을 꾸준히 받는 것만으로도 많은 심혈관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

환자의 불안한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의사, 그리고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끝내 환자의 생명을 지켜내는 의사가 되고 싶다는 이은미 교수. 30년 동안 한결같이 청진기를 가슴에 품고 환자의 곁을 지켜온 그의 모습은 환자 중심 의료와 따뜻한 인술(仁術)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심장내과 **이은미** 교수

전문진료분야 ▶ 고혈압, 심부전, 실신, 저혈압, 심초음파, 부정맥, 고지혈증

글 이명혜 기자

구멍 난 심장에서 좁아진 판막까지, 이제는 이렇게 치료합니다

선천성 심장질환과 심장판막질환, 카테터로 치료하는 시대

심장은 평생 쉬지 않고 뛰지만, 구조적인 이상이 생겨도 오랜 시간 아무런 증상 없이 지나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만으로는 질환의 유무를 판단하기 어려운 만큼, 심장이 보내는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진단 기술과 치료법의 발전으로 환자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해졌습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심장내과
장재식 교수

전문진료분야
관상동맥질환, 고혈압,
심부전, 대동맥질환,
대동맥판막치환술,
말초동맥질환시술

심장은 두 개의 심방과 두 개의 심실, 그리고 이들을 연결하는 네 개의 판막으로 이루어진 정교한 펌프입니다. 이 구조물 자체에 이상이 생기는 병을 흔히 '구조적 심장질환'이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심장 벽에 구멍이 남아 있는 선천성 심장질환과 나이가 들며 판막이 좁아지거나 새는 심장판막질환이 있습니다. 두 질환 모두 예전에는 가슴을 여는 큰 수술이 필요했지만, 최근에는 다리 혈관을 통해 카테터로 치료하는 시술이 널리 쓰이고 있어 고령 환자나 수술 위험이 높은 분들도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선천성 심장질환 – 심방중격결손(ASD)

심방중격결손은 좌심방과 우심방을 나누는 벽에 구멍이 남아 있는 병으로, 성인에서 새로 발견되는 선천성 심장질환 중 가장 흔합니다. 구멍을 통해 혈액이 우심방으로 새어 나가면서 우심방과 우심실에 부담을 주고, 이 상태가 수십 년 지속되면 호흡곤란, 부정맥, 심하면 폐동맥 압력이 올라가는 폐고혈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릴 때는 대부분 증상이 없어 모르고 지내다가, 40~50대에 이르러 건강검진이나 흉부 촬영에서 심장이 커져 있는 소견을 계기로 뒤늦게 진단받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진단은 심장초음파로 이루어집니다. 청진만으로는 놓치기 쉬워, 흉부 X선에서 심장이나 폐혈관이 두드러져 보이면 심장초음파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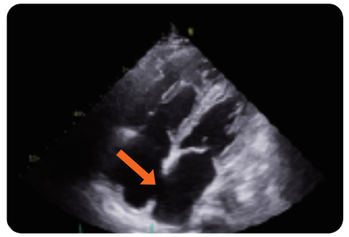


사진 1

시술 전
심방 사이 뚜렷한 구멍
(화살표 부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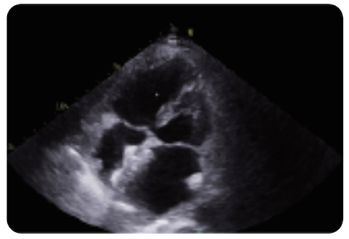


사진 2

시술 후
폐쇄 기구 삽입으로
구멍이 막힌 모습

[사진 1]은 실제 환자의 심장초음파 영상으로, 왼쪽은 시술 전 심방 사이에 뚜렷한 구멍(결손)이 관찰되는 모습이고, [사진 2]는 도관을 이용한 폐쇄 기구 삽입 후 구멍이 막힌 모습입니다.

결손의 위치와 크기가 적절하다면, 전신마취 또는 국소마취 하에 다리 정맥을 통해 작은 폐쇄 기구를 심장까지 올려보내 구멍을 막는 시술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초음파로 확인하며 알맞은 크기의 기구를 결손 부위에 안착시키는 방식으로, 가슴을 여는 수술에 비해 흉터가 거의 없고 대부분 1~2일 만에 퇴원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이 빠릅니다. 다만 결손이 너무 크거나 주변 여백이 부족한 경우, 다른 심장 기형이 동반된 경우에는 전통적인 외과적 수술이 필요합니다. [사진 3]은 실제로 심방중격결손증을 가진 환자에서 폐쇄기구를 이용하여 치료를 한 직후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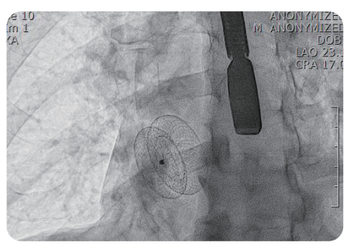


사진 3

심방중격결손증을
폐쇄 기구로 막은 모습

심장판막질환

심장에는 혈액이 한 방향으로만 흐르도록 하는 네 개의 판막(대동맥판, 승모판, 삼첨판, 폐동맥판)이 있습니다. 이 판막이 두꺼워지고 굳어 잘 열리지 않는 '협착', 반대로 제대로 닫히지 않아 피가 거꾸로 새는 '역류(폐쇄부전)'가 대표적인 두 가지 문제입니다. 원인으로는 나이가 들며 판막이 석회화되는 퇴행성 변화가 가장 흔하고, 그 외 류마티스열의 후유증, 감염성 심내막염, 선천적으로 판막 잎이 두 개뿐인 이엽성 대동맥판 등이 있습니다.

판막질환도 상당히 진행할 때까지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 정기적인 청진과 심장초음파 검진이 중요합니다. 가장 흔한 증상은 호흡곤란이며, 병이 진행되면 흉통, 실신, 다리 부종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실신이나 흉통이 동반된 대동맥판막협착증은 증상 발생 이후 예후가 급격히 나빠질 수 있어 신속한 진료가 필요합니다.

치료는 증상과 중증도에 따라 결정되며, 최근에는 대동맥판막협착증에 대해 다리 혈관을 통해 카테터로 접힌 인공판막을 심장까지 올려보내 펼쳐 넣는 경피적 대동맥판막삽입술(TAVI)이나, 승모판 역류에 대해 작은 클립으로 판막을 붙잡아 주는 클립 시술처럼, 전신마취나 인공심폐기 없이 시행할 수 있는 비수술적 치료법이 활발히 도입되고 있습니다. 고령이거나 다른 질환으로 수술 위험이 높은 환자들에게 특히 도움이 되는 치료법입니다.

조기 발견이 답입니다

선천성 심장질환과 판막질환의 공통점은 무증상 기간이 길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진찰 중 심장 잡음이 들리거나 건강검진에서 심장이 커져 있다는 소견을 들었다면 심장초음파 정밀검진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계단을 오를 때 예전보다 숨이 차거나 쉽게 피곤해지는 변화도 놓치지 말아야 할 신호입니다. 조기에 발견할수록 치료 선택지가 넓고, 시술 후 회복도 빠릅니다.

막힌 심장혈관을 넓히는 희망의 길, 관상동맥 스텐트 시술

가슴을 열지 않고 혈류를 회복시키는 효과적인 치료법

심장은 끊임없는 박동을 통해 온몸으로 혈액을 보내며 우리 몸의 생명 활동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혈관 건강은 눈에 보이지 않아 이상이 생겨도 쉽게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상동맥질환은 조기 진단과 신속한 치료, 그리고 꾸준한 관리가 예후를 좌우하는 대표적인 심혈관질환입니다. 최근에는 관상동맥 스텐트 시술의 발전으로 막힌 혈관을 보다 안전하고 신속하게 치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심장내과
박종선 교수

전문진료분야
협심증, 관상동맥 중재술,
심부전, 고혈압, 고지혈증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면 생기는 관상동맥질환

우리의 심장은 한시도 쉬지 않고 펌프질을 하며 온몸으로 혈액을 보내는 생명의 엔진입니다. 이러한 심장 근육 자체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혈관을 '관상동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기름진 식습관, 흡연, 고혈압, 당뇨,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관상동맥 내벽에 콜레스테롤이 쌓이고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같은 '관상동맥질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가슴이 쥐어짜듯 아프거나 숨이 차는 증상이 나타날 때, 좁아진 심장혈관을 넓혀 생명을 구하는 대표적인 치료법이 바로 '관상동맥 스텐트 시술(관상동맥 중재술)'입니다. 과거에는 가슴을 열고 수술하는 관상동맥 우회술이 주로 시행되었으나, 의학 기술의 발전으로 현재는 수술 없이도 막힌 심장혈관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넓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텐트 시술이란 무엇인가요?

관상동맥 스텐트 시술은 국소 마취 후 손목(요골동맥)이나 사타구니(대퇴동맥)의 혈관을 통해 가느다란 도관(카테터)을 심장혈관 입구까지 진입시키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후 좁아진 혈관 부위에 미세한 풍선을 위치시켜 부풀림으로써 혈관을 먼저 넓힙니다. 그리고 넓어진 혈관이 다시 조여들거나 막히지 않도록 망사 모양의 작은 금속 튜브인 '스텐트'를 정밀하게 세워놓는 시술입니다.

최근 사용되는 스텐트는 단순 금속이 아닌 '약물방출 스텐트(Drug-Eluting Stent)'입니다. 스텐트 표면에 혈관 재협착을 막는 약물이 도포되어 있어, 시술 후 혈관 내벽이 과도하게 증식하여 다시 막히는 재발률을 10% 미만으로 획기적으로 낮추었습니다. 시술 시간은 보통 1시간 내외이며, 전신마취가 필요 없어 통증이 적고 회복이 빨라 시술 다음 날 퇴원이 가능할 정도로 부담이 적은 치료법입니다.

시술 후 관리가 성공적인 치료의 완성

스텐트 시술은 막힌 혈관을 넓혀 숨통을 트여주는 시술일 뿐, 혈관 질환 자체를 완치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시술 후의 올바른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첫째, 항혈소판제(아스피린, 클로피도그렐 등)의 철저한 복용입니다. 스텐트는 우리 몸 입장에서 이물질이므로, 시술 초기 스텐트 내부에 혈전(피떡)이 생겨 혈관이 다시 막히는 '스텐트 혈전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전문의가 처방한 항혈소판제를 정해진 기간 동안 절대 임의로 중단하지 말고 꾸준히 복용해야 합니다.

둘째, 기저질환 관리와 생활습관 개선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은 혈관을 망가뜨리는 주요 원인입니다. 약물 치료와 함께 나트륨과 지방 섭취를 줄이는 식습관, 주 3~5회 유산소 운동, 그리고 무엇보다 '절대 금연'을 실천해야 합니다.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전을 유발하는 가장 치명적인 위험 요인입니다.

가슴 통증,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세요

심근경색은 쥐어짜는 듯한 가슴 통증이 30분 이상 지속되며 턱, 어깨, 팔로 통증이 퍼지거나 식은땀이 동반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망설이지 말고 즉시 119에 연락하여 관상동맥 중재술이 가능한 대형병원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스텐트 시술은 막힌 심장혈관을 넓혀 환자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는 현대 의학의 빛나는 결실입니다. 평소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고, 적극적인 치료와 꾸준한 건강 관리를 병행하신다면 건강하고 활기찬 심장과 함께 건강한 삶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관상동맥 스텐트 시술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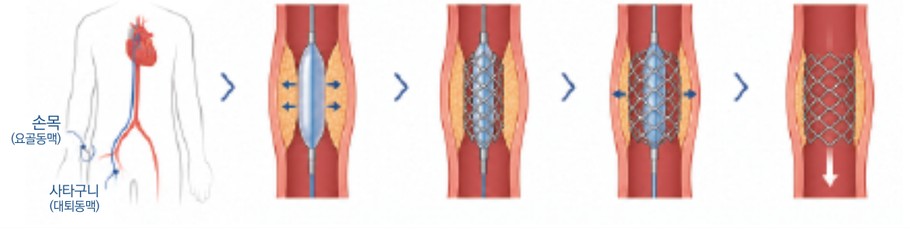
❶ 혈관 접근
손목(요골동맥) 또는 사타구니(대퇴동맥)의 혈관을 통해 카테터를 삽입합니다.

❷ 풍선혈관성형술
좁아진 혈관 부위에 풍선을 위치시켜 부풀려 혈관을 넓힙니다.

❸ 스텐트 삽입
넓어진 혈관에 스텐트를 정밀하게 위치시킵니다.

❹ 스텐트 확장
풍선을 다시 부풀려 스텐트를 혈관 벽에 밀착시킵니다.

❺ 시술 완료
풍선과 카테터를 제거하고 스텐트가 혈관을 지지하여 혈류가 원활해집니다.



“체한 줄 알았어요” 심장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

소화불량으로 오인하기 쉬운 심근경색의 위험신호

우리 몸은 위급한 순간을 맞기 전, 여러 차례 도움을 요청합니다.
특히 심장은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위험을 알리지만,
익숙한 일상 속에서 그 신호는 쉽게 다른 증상으로 오해받곤 합니다.
심근경색은 시간을 다투는 질환입니다. 작은 이상도 가볍게 넘기지 않는 관심과
신속한 대처가 나와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체한 줄 알았던 그 순간, 심장은 위험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새벽 세 시, 관광지 경주의 한 호텔에서 가슴과 윗배가 답답해 잠에서 깬 60대 남성이 있었습니다. 평소 하루 한 갑 정도의 담배를 피우고, 운동은 적게 하지만 대대로 건강한 체질이라고 생각하며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지냈습니다. ‘저녁을 급하게 먹어 체했나 보다’하고 소화제를 구하려고 편의점에 가던 중 의식을 잃고 응급실로 실려 왔습니다. 진단은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본원 응급센터에서 드물지 않게 만나는 상황입니다. 심근경색 환자의 상당수는 증상이 시작된 뒤에도 몇 시간을 버티다가 병원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몇 시간이 생사를 가릅니다.

심장은 멈추기 전에 분명한 신호를 보냅니다

심장은 멈추기 전에 신호를 보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가슴 한가운데를 묵직하게 짓누르거나 조이는 듯한 통증입니다. 바늘로 콕콕 찌르는 통증보다 ‘코끼리가 가슴을 밟고 있는 것 같다’는 압박감이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이러한 통증이 30분 이상 이어지거나 왼팔, 턱, 목, 등으로 뻗어 나가고, 식은땀이나 구역, 어지럼증이 함께 나타난다면 심근경색을 강하게 의심해야 합니다. 계단을 오를 때 가슴이 조여 오다가 쉬면 나아지는 증상도 심장 혈관이 좁아졌다는 협심증의 경고입니다. 갑작스러운 심한 호흡곤란이나 이유 없는 실신 역시 심장이 보내는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동국대학교경주병원
응급의학과
이주택 교수

전문진료분야
성인 응급의학, 소생의학, 외상학

‘체한 줄 알았어요’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신호가 늘 교과서처럼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폐경 이후의 여성과 고령자, 당뇨병 환자는 뚜렷한 가슴 통증 없이 소화불량이나 극심한 피로감, 턱이나 등의 통증만으로 심근경색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응급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체한 줄 알았어요”입니다. 평소와 다른 설명되지 않는 불편감이 지속된다면, 특히 고령이거나 당뇨병, 고혈압, 흡연력이 있다면 먼저 심장질환을 의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골든타임을 지키는 가장 빠른 선택은 119입니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참고 지켜보지 말고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직접 운전해서 병원을 찾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동 중 의식을 잃으면 본인은 물론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위태롭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적절한 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119를 통해 신속하게 찾아야 합니다. 심근경색 치료의 핵심은 막힌 혈관을 얼마나 빨리 재개통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치료가 늦어질수록 살릴 수 있는 심장 근육은 줄어들고, 생명을 구하더라도 심부전이나 부정맥과 같은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망설이지 않는 선택이 생명을 지킵니다

“괜히 온 것 아닌가”라고 걱정하며 응급센터 문 앞에서 망설이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응급의학과 의사에게 검사 결과가 정상으로 확인되는 것만큼 반가운 일은 없습니다. 심장은 분명히 위험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놓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병원을 찾는 것이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내 심장은
건강할까요?

심장 검사
바로 알기

심장은 하루도 쉬지 않고
우리 몸에 혈액을 공급하는
중요한 장기입니다.
심장 검사는 심장의 전기적
활동과 구조, 혈류, 혈관 상태
등을 다각도로 확인해
부정맥, 협심증, 심근경색,
심부전 등 다양한 심장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심전도 검사
심장박동에 의해 발생한 심장의 활동
상태를 그래프 상에 기록해서 심장의
상태를 알아 볼 수 있는 검사입니다.
부정맥, 관상동맥질환 등 심장질환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동맥파형 검사
사지 각 부위별 혈류파형과 혈압을
측정하여 동맥경화의 정도 및 혈관의
탄력성을 파악하고 동맥경화와 관련된
질환의 진단 및 치료에 도움을 주는
검사입니다.

운동부하 심전도 검사
러닝머신 위에서 시간에 따라
경사와 속도의 변화를 두고 달리면서
심전도 및 혈압의 변화, 흉통 유무를
관찰함으로써 협심증, 심근경색을
진단하거나 부정맥 진단과 치료방향을
결정하는 검사입니다.

기립성 저혈압 검사
기립성 저혈압을 알아보기 위해
누웠을 때와 일어났을 때의 순간적인
혈압 변동의 혈압 차이를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24시간 혈압 검사
하루 동안 일상생활을 하면서
혈압의 변화를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초기 고혈압 진단, 혈압약 복용 후
효과판정, 병원에만 오면 혈압이
높아지는 백의 고혈압, 고혈압이
불확실한 환자를 대상으로 혈압을
감시하는 데 유용한 검사입니다.


심장초음파 검사


운동부하 심전도 검사


심전도 검사

24시간 심전도 검사
하루 동안 일상생활을 하면서
심전도를 기록하는 검사입니다.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부정맥의 진단,
부정맥과 일상생활과의 관련성,
부정맥 치료 효과의 판정, 인공
심박동기의 기능 판정 및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의 향후 급사 위험의
판정에 효과가 있습니다.

장시간 홀터 검사
단시간 심전도 검사에서 발견되지
않은 부정맥을 24시간~7일 동안
심장의 전기적 활동 상태를 연속적으로
기록해 심전도 변화를 관찰합니다.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부정맥의 진단,
부정맥과 일상생활과의 관련성,
부정맥 치료 효과의 판정, 인공
심박동기의 기능 판정 및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의 향후 급사 위험의
판정에 효과가 있습니다.

기립 경사대 검사
자율신경계의 활동성이 과잉이 되면
저혈압, 심박동수 저하, 이로 인한
뇌혈류량 감소가 생기고, 실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신의 원인이 자율신경계의 과도한
활동성에 의해 나타난 것인가를
판정하기 위한 검사입니다.

경동맥 초음파 검사
머리로 혈류를 공급하는 경동맥의
동맥경화 정도와 경동맥내의 혈전
유무를 알아보는 검사입니다.
허혈성 심질환 및 뇌졸중의 위험도를
미리 알아 볼 수 있습니다.

경흉부 심장초음파 검사
초음파를 이용해서 심장의 구조와
기능을 평가하고 선천성, 후천성
심장질환, 관상동맥질환 등의
심장 질환을 진단하는 데
사용되는 검사입니다.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경우
입체영상(4D)기법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경식도 심장초음파 검사
내시경을 하듯이 관을 식도에
삽입하여 경흉부 심장초음파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자세히
심장을 볼 수 있는 검사로 심장내과
전문의가 직접 시행합니다.
판막질환, 선청성 심질환, 심내막염,
심장 내 혈전의 유무 등을 진단하기
위해 시행합니다.

심장이 멈춘 순간, 누구나 알아야 할 응급처치!

CPR

4분의 골든타임 심폐소생술

심정지 후, 골든타임은 단 4분! 초기 4분 이내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요!

심폐소생술 방법

1 반응 확인

- 양쪽 어깨를 두드리며, 환자의 의식과 반응 확인



2 신고 및 도움 요청

- 119 신고 및 주변에 자동심장충격기(AED) 요청



3 호흡 확인

- 환자의 얼굴과 가슴을 10초 내로 관찰해 호흡 확인
- 호흡이 없거나 비정상적이면 즉시 심폐소생술 준비



4 가슴 압박 30회

- 환자의 가슴 압박점을 찾아 깍지 낀 두 손의 손바닥 뒤꿈치로 압박 실시

※ 분당 100~120회 속도, 약 5cm 깊이



5 인공호흡 2회

- 환자의 머리를 뒤로 기울이고, 턱을 들어올려 기도 유지
- 환자의 코를 막고, 구조자의 입을 환자 입에 밀착
- 환자의 가슴이 올라올 정도로 1초 동안 숨 불어넣기

※ 가슴압박 : 인공호흡 = 30 : 2



AED

멈춘 심장을 뛰게 하는 자동심장충격기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하면, 심폐소생 확률을 높일 수 있어요!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

1 전원 켜기

- 심폐소생술 도중 자동심장충격기*가 도착하면 지체 없이 전원 버튼 누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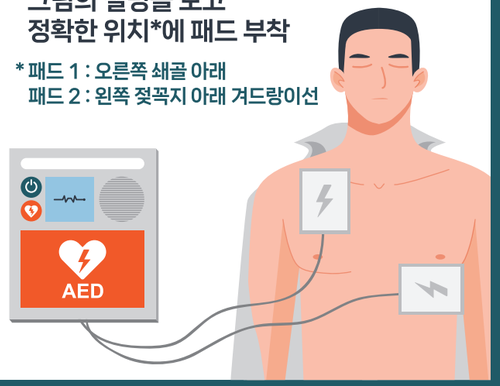
* 반응과 정상적인 호흡이 없는 심정지 환자에게만 사용



2 패드 부착

- 자동심장충격기 중 그림의 설명을 보고 정확한 위치*에 패드 부착

* 패드 1 : 오른쪽 쇄골 아래
패드 2 : 왼쪽 젖꼭지 아래 겨드랑이선



3 심장리듬 분석

- 심장충격기가 심장리듬을 분석하는 동안 환자에게 닿지 않게 떨어지기

심장충격이 필요한 경우

"심장충격이 필요합니다"라는 음성지시와 함께 자동으로 충전되고, 충전 중엔 가슴압박 실시

심장충격이 필요 없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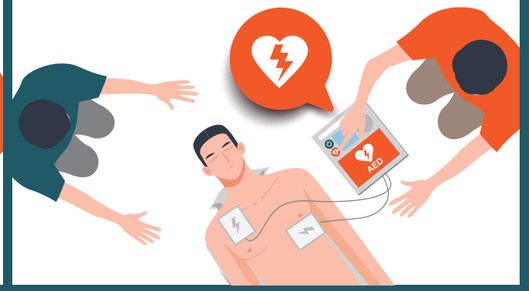
심폐소생술 계속 실시



4 심장충격 실시

- 심장충격이 필요한 경우 깜빡이는 버튼을 눌러 심장충격 실시

※ 다른 사람이 환자에게서 떨어져 있는지 꼭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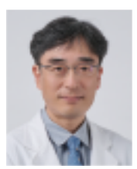
2023. 6. 15. 질병관리청 소방청

한방(韓方)으로 건강하게

가슴 두근거림 왜 생길까요?



가슴 두근거림은 심장이 평소보다 빠르거나 강하게, 또는 불규칙하게 뛰면서 자신의 심장 박동을 평소보다 뚜렷하게 느끼는 증상을 말합니다. 사람에 따라 심장이 쿵쾅거리는 느낌, 울렁거리는 느낌, 덜컥 내려앉는 느낌, 불규칙하게 뛰는 느낌 등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특히 가슴에서 나타나는 증상은 생명과 직결된다는 불안감 때문에 실제 증상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한방내과
최동준 교수

전문진료분야 ▶ 중풍전조증, 중풍후유증, 파킨슨병, 이상운동질환, 가슴통증, 협심증, 가슴두근거림, 동맥경화

1 한의학에서 보는 가슴 두근거림의 원인

한의학에서는 가슴 두근거림을 여러 유형으로 나누어 치료하지만, 대표적으로 혈허(血虛)와 담음(痰飮)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허(血虛)형

혈허는 심장을 영양하는 혈이 부족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평소 스트레스가 많거나 신경이 예민하고, 지속적인 정신적 긴장이나 과로로 혈이 소모되면 심장을 안정시키는 기능이 약해져 두근거림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주요 증상

- 쉽게 피로하고 기운이 없음
- 잠이 잘 오지 않거나 꿈이 많음
- 손바닥과 발바닥에 열감이 있음
- 귀에서 소리가 나는 이명
- 허리 통증이나 무릎이 시큰한 증상

담음(痰飮)형

담음은 체내 수분대사가 원활하지 않아 불필요한 수분과 노폐물이 몸에 정체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담음이 명치 아래에 머물러 심장의 기운을 방해하면 가슴 두근거림이 발생하거나 심해질 수 있습니다.

주요 증상

- 가슴이 답답하고 두근거림
- 숨이 자주 참
- 속이 울렁거리거나 메스꺼움
- 배에서 물 흐르는 듯한 꾸르륵거림
- 몸이 무겁고 쉽게 피로함

이 밖에도 잘 놀라는 성향이 있거나 심장의 기운이 약한 경우 등 다양한 체질과 원인에 의해 가슴 두근거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2 두근거림을 일으키는 질환

가슴 두근거림은 여러 질환의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대표적인 원인은 부정맥입니다. 부정맥 중에도 심방세동, 발작성 빈맥, 조기수축, 서맥, 빈맥 등 다양한 원인이 두근거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부정맥 이외에도 심장의 구조적 이상, 자율신경계 이상, 빈혈, 감염성 질환, 갑상선 기능 이상, 불안장애 및 공황장애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환은 당장 치료를 시작해야 할때도 있고, 일단 지켜보며 더 나빠지지 않는지 관찰해야 할때도 있습니다. 치료를 해야해서 질환 자체는 잘 치료를 받았는데 두근거림은 없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환이 두근거림을 유발하지 않도록 한의학적인 관리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 “
> 가슴 두근거림은
> 원인 질환의 치료와 함께
> 생활 습관, 스트레스, 체질까지
>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 몸의 균형을 바로잡는 것이
> 두근거림을 줄이는 중요한
> 시작입니다.
> ”

3 생활 속 유발요인 관리도 중요합니다

가슴 두근거림은 원인 질환을 치료하는 것만큼이나 증상을 유발하는 생활 습관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질환이 있더라도 피로가 누적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긴장된 상황에 놓였을 때 증상이 쉽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통증이나 몸이 불편한 상태, 카페인 섭취, 음주, 흡연, 수면 부족 등도 두근거림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충분한 휴식과 규칙적인 수면, 스트레스 관리, 적절한 운동, 카페인과 음주를 줄이고 금연하는 생활 습관을 함께 실천하는 것이 가슴 두근거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운동은 심장의 기능을 강화시킬 뿐 아니라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인간의 신체는 몸이 움직일 때 머리가 휴식하기 때문입니다.

가슴 두근거림은 많은 경우 당장 생명을 위협하는 급박한 상황이 아니지만, 일상생활을 방해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며, 환자에게 공포감을 유발하고, 또 다른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두근거리는 증상이 생활에 불편을 준다면, 원인을 확인하고, 자주 나타나지 않도록 평소에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관리에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30년의 신뢰, 미래 한의학을 열다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 개원 30주년

ANNIVERSARY SPECIAL · 1996 - 2026

학교법인 동국대학교의료원 산하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이 올해 개원 30주년을 맞았다. 경기남부권 유일의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으로 출발하여, 지난 30년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전통 한의학의 가치와 대학병원의 교육·연구·진료 역량을 바탕으로 신뢰받는 의료기관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분당 신도시의 성장과 함께 지역 주민의 건강을 지켜온 병원은 불교의 자비정신을 바탕으로 환자 중심의 전인적 의료를 실천하며 한·양방 통합의료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해 왔다. 개원 30주년을 맞은 지금,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은 지난 30년의 성과를 발판 삼아 미래 한방의료를 선도하는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1996년 7월 22일, 뜻깊은 첫걸음
한방의료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다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은 1996년 7월 22일, 분당 1기 신도시의 성장과 함께 문을 열었다. 수도권 최초의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으로 출범한 병원은 전통의학의 발전과 우수한 한의인 양성이라는 사명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기관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개원 당시부터 첨단 의료설비와 우수한 의료진을 갖추며 한방 의료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고, 변화하는 의료환경 속에서도 생명 존중과 자비 정신을 실천하며 성장해 왔다. 30년 동안 축적한 풍부한 임상 경험과 치료 성과는 병원의 가장 큰 자산이 되었으며, 지역사회가 보내준 신뢰는 오늘의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을 만든 원동력이 되었다.

한·양방 통합 맞춤형 협진
환자 중심의 다학제 치료 시스템 구축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의 가장 큰 경쟁력은 한방과 양방의 장점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한·양방 통합 맞춤형 협진 시스템이다.
한방내과, 사상체질과, 침구의학과, 한방재활의학과와 양방 재활의학과가 긴밀하게 협력하여 환자의 질환과 회복 단계에 맞는 치료를 제공한다.
뇌졸중, 교통사고 후유증, 안면마비, 척추·관절질환 등 기능 회복이 중요한 질환에서는 침구치료와 추나요법, 한약치료, 재활치료를 연계한 다학제 진료를 통해 치료 효과를 높이고 빠른 일상 복귀를 돕고 있다.
현대의학의 정확한 진단과 전통 한의학의 치료 강점을 결합한 협진 시스템은 환자 맞춤형 통합의료 모델로 자리 잡으며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의 대표 경쟁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생명의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의료
한방병원 최초 호스피스 전문기관 지정

생명을 존중하고 자비를 실천하는 의료는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의 중요한 가치이다.
병원은 2025년 5월 15일 한방병원
최초로 보건복지부 지정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기관으로 승인받아 말기 암 환자와
가족을 위한 전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센터장을 중심으로 한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스님 등으로 구성된
완화의료팀은 환자의 통증과 신체 증상을
관리하는 것은 물론 심리적·사회적·영적
돌봄까지 함께 제공하며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질병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 환자와
가족의 삶을 함께 돌보는 의료는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이 실천하는
자비의료의 대표적인 모습이다.



자비의료로 치유의 길을 이어오다

몸과 마음을 함께
돌보는 환자 중심의
의료를 실천해 왔으며,
그 가치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30년의 경험, 미래 100년의 도전
미래 한의학의 새로운 표준을 향하여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은 지난 30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 한의학을 선도하기
위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각 진료과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특수클리닉을
활성화하고, 한방 치료의 표준화와 근거 중심
의료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지속적인 임상 연구와 학술 활동을 통해
한의학의 과학적 근거를 축적하고,
난치성·만성질환을 비롯한 다양한 질환에서
환자 맞춤형 치료 모델을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맞춰
진료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교육과 연구,
임상,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아우르는 미래형
한방 의료기관으로 성장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30년이 신뢰를 쌓아온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100년은 한의학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장하는 여정이 될 것이다. 동국대학교
분당한방병원은 전통과 현대를 잇는
통합의료를 바탕으로 미래 한의학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선도 의료기관으로 나아가고 있다.

함께한 30년 함께 만들어갈 미래

지난 30년의 발자취를
디딤돌 삼아,
더 나은 의료와
더 큰 희망을 향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갑니다.



Message

동국대학교 분당한방병원이 개원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30년은 수많은 환자와 지역사회가 보내주신 믿음 속에서 함께 성장해 온 시간이었습니다. 언제나 병원을 신뢰하고 찾아주신 환자와 보호자 여러분,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병원의 역사를 만들어 온 교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그동안 의료환경은 빠르게 변화했고, 병원 역시 수많은 도전과 변화를 마주했습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모든 과정은 더 나은 의료를 향해 나아가기 위한 밑거름이 되었으며, 오늘의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을 만든 소중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은 언제나 생명 존중과 자비 정신을 의료의 중심에 두고 환자를 바라보며 걸어왔습니다. 질병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 사람을 이해하고, 몸과 마음을 함께 돌보는 의료를 실천하는 것이 우리 병원이 지켜온 가치였습니다. 이러한 마음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날 의료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헬스케어, 초고령 사회 등 새로운 환경 속에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우리가 지켜야 할 본질은 환자 중심의 의료이며,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의료기술과 연구 역량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또한 우리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은 전통 한의학의 가치를 바탕으로 교육과 연구, 진료가 조화를 이루는 대학병원으로서 미래 한방의료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30주년은 지난 시간을 기념하는 날인 동시에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환자에게 더욱 신뢰받는 병원, 교직원이 자부심을 느끼는 병원, 그리고 미래 한방의료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는 대학병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의 새로운 여정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
병원장 **김 근 우**

첫방문 동국대학교병원

처음 오셨나요?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첫 방문 환자 전용 창구

병원을 처음 방문하는 환자와 보호자에게
병원은 낯선 공간이다. 진료를 앞둔 긴장감에
더해 접수와 수납, 검사실 이동, 진료과 찾기 등
복잡한 절차를 이해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고령 환자나 어린 자녀를 동반한 보호자에게는
이러한 과정이 더욱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이러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
'첫 방문 전용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첫 방문 환자 전용 공간을 조성해 대기 시간도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처음의 낯섦을 안심으로 바꾸다

첫 방문 전용 창구는 처음 방문하는 환자와 보호자는 물론 병원 이용 안내가 필요한 내원객이라면 누구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전용 창구에서는 환자 접수 절차 안내를 비롯해 병원 내 주요 시설과 진료과 위치 안내, 의무기록 수납 관련 안내 등 병원 이용 전반에 대한 상담을 제공한다. 단순히 길을 알려주는 데 그치지 않고 환자가 진료 과정에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첫 방문 환자에게는 전용 목걸이를 제공해 교직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목걸이를 착용한 환자를 발견한 교직원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다가가 필요한 도움을 제공한다. 길을 찾지 못해 망설이거나 진료 절차가 익숙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도 먼저 안내를 받을 수 있어 환자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환자의 마음까지 살피고자

실제로 병원을 찾는 많은 환자들은 의료의 질뿐 아니라 병원을 이용하는 과정에서의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진료를 받기 전부터 느끼는 불안과 긴장을 줄여주고,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는 것 역시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의 중요한 부분이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의 첫 방문 전용 창구는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출발했다.

환자가 병원 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진료를 마치고 돌아가는 순간까지 보다 편안하고 안전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다. 누군가에게 병원 방문은 일상의 작은 일정일 수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한 중요한 순간일 수 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오늘도 환자와 보호자의 마음까지 살피며, 더 따뜻하고 편안한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대상 ▶ 첫 방문 환자, 보호자 및 병원 안내가 필요한 내원객
위치 ▶ 1층 메인 창구 내 12~13번 창구
운영시간 ▶ 평 일 08:30~17:30
토요일 08:30~12:30



첫 방문 전용 목걸이를 착용하시면
병원 곳곳에서 직원들이 먼저
알아보고 친절하게 안내해드립니다.



접수와 진료 절차 안내부터
병원 내 위치 안내, 의무기록 발급
및 수납까지 필요한 서비스를
도와드립니다.



> "병원은 처음이라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 건강검진 결과 이상 소견을 받아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을 찾은 OOO 씨는 병원 로비에 들어서자 잠시 발걸음을 멈췄다. 접수는 어디에서 해야 하는지, 진료과는 어떻게 찾아가야 하는지, 검사 일정은 어떻게 확인하는지 낯선 공간은 생각보다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그 걱정은 오래가지 않았다. 로비 한편에 마련된 '첫 방문 전용 창구'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창구 직원은 환자의 진료 예약 여부를 확인한 뒤 접수 절차를 안내하고, 진료과 위치와 이동 동선을 설명했다.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 주고, 진료 후 의무기록 수납 창구 위치까지 친절하게 알려주었다. 처음 방문한 환자가 병원 이용 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불안과 혼란을 줄여주는 순간이었다.
OOO 씨는 "병원에 처음 오면 작은 것 하나도 물어보기 어려운데, 전용 창구가 있어서 마음이 한결 편했다"며 "어디로 가야 하는지 헤매지 않고 바로 안내받을 수 있어 안심이 됐다"고 말했다.

병원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일상까지, 진심으로 잇다

동국대학교경주병원
공공의료본부 지역협력연계팀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지역필수의료법)이 2026년 3월 제정되어 2027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지역 필수의료를 강화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연간 약 1조 1천억~1조 2천억 원 규모의 재원을 지역 필수의료 인력 확충, 의료취약지역 지원, 진료협력체계 구축 등에 투입할 예정이다.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국가 차원의 핵심 의료정책이다.
동국대학교경주병원은 2024년 4월 경주권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지역주민이 거주지에서 안정적으로 필수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완결형 의료협력체계 구축에 힘쓰고 있다. 공공의료본부 지역협력연계팀을 중심으로 지역 보건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중증응급 이송·전원 및 진료협력, 정신건강증진, 보건의료 인력 양성 등 지역 필수의료 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치료를 넘어 일상을 잇는 따뜻한 동행

병원 안에서의 치료가 생명을 살리는 시간이라면, 퇴원 후의 시간은 삶을 이어가는 시간이다. 급성기 치료를 마치고 퇴원을 앞둔 환자들과 보호자들은 집에 가서 혼자 어떻게 감당할까 하며 막막해하곤 한다. 지역협력연계팀은 환자가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병원 문밖까지 손을 잡고 동행한다. 환자의 거주지 보건소 및 의료기관과 연결해 건강을 세심히 살피는 것은 물론, 복지기관과 손을 잡아 따뜻한 식사 한 끼와 안전한 집안 환경까지 촘촘히 챙긴다. 퇴원을 앞두고 막막해하던 환자와 보호자들이 연계된 도움의 손길을 보며 '이제야 마음이 놓인다'고 안도할 때, 이 팀은 가장 깊은 보람을 느낀다.

소통의 장벽을 허물다

병원과 복지 영역은 행정절차나 정보보호 등의 이유로 가끔 소통의 장벽이 존재하기도 한다. 하지만 지역협력연계팀은 서류를 넘어 직접 발로 뛰는 '사람의 온기'로 그 장벽을 넘어선다. 119구급대원 역량강화교육을 지원하는 등 유관기관 실무자들과 얼굴을 맞대며 끈끈한 신뢰를 쌓고, 응급상황에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단단한 방패를 만든다. 이를 위해 환자의 아픔을 임상적으로 읽어내는 날카로운 눈을 가진 간호사, 퇴원 후 환자의 일상을 다시 세워주는 튼튼한 버팀목 같은 물리치료사, 그리고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보듬고 지자체 자원을 찾아내는 따뜻한 손을 가진 사회복지사가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며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365일 빈틈없는 지역사회 안전망

병원 안에서 의료진들은 환자를 보지만, 병원 밖을 나서는 순간 한 명의 사람을 본다. 지역협력연계팀의 꿈은 단순히 기술적인 시스템 고도화를 넘어, 경주와 인근 지역 어디서든 아프면 언제든 누군가 나를 돌봐줄 것이라는 단단한 믿음을 주는 것이다. 경주 주민들이 "경주병원 덕분에 든든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불안함이 아닌 평온함으로 병원 문을 나설 수 있도록, 지역협력연계팀은 오늘도 지역사회 현장 곳곳을 따뜻하게 이어가고 있다.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의 상생과 협력

지역협력연계팀의 발걸음은 병원 담장을 넘어 지역 전체로 확장된다. 경주권 필수의료 협의체를 중심으로 관내 보건소, 소방서, 복지관, 요양병원 등 수십 여 개 유관기관과 정기적으로 머리를 맞댄다. 서로 다른 행정 체계 속에서 발생하는 간극을 메우기 위해 끊임없이 소통하고, 실무자 간 원활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 역시 이들의 중요한 임무다.
중증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지체 없이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송·전원 체계를 점검하고, 지역 내 보건의료 인력을 대상으로 한 역량강화 교육을 꾸준히 이어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단순히 환자 한 명을 연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전체의 의료 질을 함께 끌어올리는 '상생의 선순환'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건강한 일상, 경주권의 내일을 잇다

'보건의료와 복지의 경계를 허물고, 사람과 사람을 잇는 일.' 지역협력연계팀이 말하는 필수의료 협력체계의 본질이다. 아무리 뛰어난 의료 기술도 환자의 삶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반쪽짜리 치료에 그칠 수밖에 없기에, 이들은 매일 환자의 치료 이후 삶을 함께 고민한다.
오늘도 지역협력연계팀의 전화기는 쉴 새 없이 울리고, 팀원들의 운동화 끈은 다부지게 매어진다. 병원 문을 나서는 환자의 뒷모습이 쓸쓸하지 않도록, 경주와 인근 지역 주민 누구나 건강하고 존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동국대학교경주병원 지역협력연계팀이 그려가는 따뜻한 의료 안전망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땀 한 땀 촘촘해지고 있다.

글 이명혜 기자

염화미소
拈華微笑
무여스님

달님에게 소원을 비는 풍성한 한가위

한가위의 보름달은 일 년 중 가장 밝고 원만한 달이다. 누구나 달을 보며 풍요를 기원하고 가족의 행복을 축원한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보름달을 단순한 풍요의 상징으로만 보지 않는다. 달은 청정한 지혜와 자비를 상징하는 월광보살의 원력을 떠올리게 한다. 월광보살은 일광보살과 함께 병고와 재난으로부터 중생을 구제하는 약사여래불의 좌우 협시보살로도 등장한다. 일광보살은 햇빛처럼 모든 곳을 두루두루 비추는 존재이고 월광보살은 달빛처럼 중생을 어루만지는 존재이다.

월광보살은 달빛처럼 모든 중생을 차별 없이 비추신다. 달빛은 높은 산에도 비치고 낮은 골짜기에도 비치며, 깨끗한 물에도 흐린 물에도 모두 비친다. 이처럼 월광보살의 자비는 선악과 귀천을 가리지 않고 모든 생명에게 평등하게 미치고 있다.

한가위의 둥근 보름달을 바라보며 우리는 풍요와 감사의 마음을 떠올린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참된 풍요는 밖의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만족할 줄 아는 마음에 있다고 하셨다. 모든 것의 근본은 마음에 있음을 다시금 가슴에 새기면서 내 마음자리를 살펴보자. 곡식이 익어 수확을 거두어들이듯 우리도 보름달을 보면서 그동안 지은 몸과 말과 마음 씨앗의 열매를 거둘 것이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 선한 마음을 심었으면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고, 악한 마음을 심었다면 괴로움의 열매를 마주할 것이다. 자신의 잘못과 어리석음을 참회하고, 다시 발원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차별 없는 보름달의 마음처럼 자비로운 마음은 내 가족뿐 아니라 이웃과 사회, 그리고 모든 생명에게 두루 향해야 한다. 함께 나누려는 마음이 있을 때 한가위의 풍요는 더욱 커질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공덕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는 것이 큰 복이라고 하셨다. 풍성한 한가위를 맞아 부모님과 조상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스승과 도반, 이웃의 도움에 감사하며, 오늘까지 살아온 모든 인연에 감사하는 마음을 내어야 한다.

보름달을 바라보며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본다.

"나는 누구를 가리고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누구를 차별하고 미워하고 있는가?"

한가위의 참된 공양은 음식과 선물을 나누는 데만 있지 않고, 미움은 용서로 바꾸고 원망은 감사로 바꾸는 데 있다.

우리의 불성 또한 본래 보름달처럼 밝고 원만하지만,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구름에 가리면 드러나지 않는다. 수행은 매 순간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구름을 걷어내는 것이다.

> "보름달이 세상을 고르게 비추듯,
> 우리 마음도 차별 없는 자비와
> 지혜로 세상을 밝혀야 합니다."

한가위의 밝은 달 아래에서 월광보살의 원력을 새기며 간절한 마음으로 발원해 본다.

'월광보살의 청량한 지혜 광명이 제 마음의 번뇌를 비추어 탐진치의 어둠을 걷어내겠습니다. 보름달이 온 세상을 고르게 비추듯 저 또한 차별 없는 자비심을 내어 모든 인연을 사랑하고 존중하겠습니다.
한가위의 풍요를 나누며 물질의 풍요를 넘어 지혜와 자비의 풍요를 이루겠습니다.
이 공덕을 일체중생에게 회향하오니 모두가 마음의 평안을 얻고 함께 깨달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십시오.
나무 월광보살 마하살…'

한가위의 보름달은 하늘에 떠 있는 달이지만, 월광보살의 광명은 우리 마음속에 항상 밝게 비치고 있는 자비와 지혜의 광명이다.
우리 모두의 마음 또한 본래 원만하고 항상 빛나고 있음을 믿고, 이 마음이 모여서 이 세상이 더 살기 좋은 세상, 더 밝게 빛나는 세상, 아름다운 세상이 되기를 바라본다.

글 무여스님

現 고양시 보리선원 주지 / 유튜브 '무여스님 TV' 운영 /
달마사 · 화계사 · 연운사 불교대학 강사 / 저서 〈우리 함께 떠나요〉

템플 스케치

강원도
양양
낙산사

바다를 마당으로 품은 절

#1

사진이든 그림이든 프레임 안에서 다른 공간을 들여다보는 구도를 좋아하는 내게
사찰은 너무나 훌륭한 공간이다. 사찰 입구 일주문을 시작으로 천왕문, 누각 아래,
전각 입구의 중문을 지나는 일은 계속해서 새로운 차원으로 이동하는 기분이 들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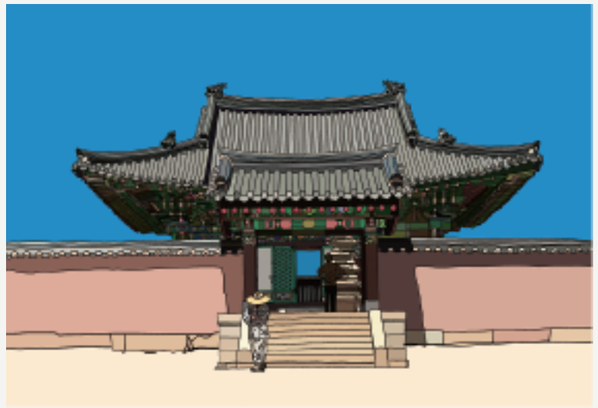
응향각을 지나면서 원통보전과 칠층탑이 보였다. 가슴이 두근거리는 게 오랫동안
보고 싶었던 연인을 만나러 가는 기분이다.





#2

양양과 속초는 자주 왔지만 낙산사는 참 오랜만이었다.
다른 여정 중에 잠시 들르거나 멀리서 관음상만
바라봐야 했던 낙산사는 언제나 섬이었다.
육지에 있어도 닿지 못하면 섬이 아닐까?
눈앞에 있으나 닿지 않는 그곳은 더 애틋하고
간절한 섬이 되어 나를 돌아서게 만들었다.
반대편 언덕 소나무에 기대서, 때론 돌아가려고
시동을 건 자동차 창문 너머로, 다시 보기 힘든 연인의
뒷모습을 바라보듯 내 눈을 붙들었다.
그런 낙산사, 원통보전이 오늘은 길을 열고 육지가 되어
나를 바라본다. 오래 기다렸다고, 이제 만날 때가 되었다고
하는 듯 맑은 하늘 아래 가만히 서서 기다리고 있다.
사진이든 그림이든 프레임 안에서 다른 공간을
들여다보는 구도를 좋아하는 내게 사찰은 너무나
훌륭한 공간이다. 사찰 입구 일주문을 시작으로 천왕문,
누각 아래, 전각 입구의 중문을 지나는 일은 계속해서
새로운 차원으로 이동하는 기분이 들어 좋다.



#3

나는 절집에 가면 늘 곳곳에서
물고기를 찾는 습관이 있다.
법당의 벽면이나 창살에 그려져
있기도 하고, 법당 안 천정에 있기도
하고, 처마에 매달려 있기도 했다.
그들의 모습이 어눌하고 비율에
맞지 않은 친근한 모습일수록
더욱 눈길이 가는 것은 아마 내 삶의
모습이 그렇기 때문이리라.
눈을 감지 않는 그들의 삶처럼
내 마음도 언제나 깨어 있고 싶다.
바다를 향한 하늘에 매달린 물고기는
파도를 듣고 있을까?

#4

멀리 바다를 보고 있는 해수 관음상의
모습이 계단 위로 조금씩 보였다.
사방이 탁 트인 정상에서 바라보는 기분은
가슴에 구멍을 뚫어 가벼워지는 듯 했다.

정토를 바라보고 그 아래 중생을 품은
관음상 아래서 해가 지기를 기다렸다.
낮아진 해가 석등에 걸리는 순간을
사진으로 담고 그림으로 그리고 싶었다.
먹먹해진 마음으로 해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바라봤다.
한참을 기다려 따뜻한 어둠을 만나고 나서
가만히 일어섰다.

#5

무슨 생각이었는지 갑자기 엽서를 사고
싶었다. 요즘은 엽서를 사는 사람이 거의
없는지 낙산사의 풍광이 담긴 빛이 바랜
사진 엽서 몇 장을 겨우 찾았다.
어머님께 보내고 싶은 마음으로 샀는데
펼쳐두고 보니 여행을 마치고 돌아간
나 자신에게 쓰고 싶었다.

나를 위로하기 위해 온 여행에서
나 스스로에게 보낸 위로의 엽서를
일상으로 돌아간 어느 날 받는다면,
언제든 따뜻한 감정을 느꼈던 이 순간을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힘들고 지칠 때, 사랑하는 사람의
웃음이 보고 싶어질 때, 엽서를 보면
언제든 낙산사의 이 시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았다.

글 · 그림 **배 종 훈**

낮에는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밤과 주말에는
여행하고,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며 느긋한 외로움을
즐기고 있다.
〈출간도서〉 유럽을 그리다,
처마 끝 풍경이 내게 물었다,
마음을 두고 와도 괜찮아,
행복한 명상카툰 외 다수.

누수 피해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을장마가 무섭다. 지구온난화로 장마 시기가 뒤로 밀리면서 여름보다 가을에 비 피해가 심하다. 박진철(가명)은 오래도록 월세, 전세로 살다가 드디어 자가 주택을 경매로 매수했는데, 비가 많이 오는 날마다 천장에서 비가 새는 피해를 받고있다.

2층 주인 성한수(가명)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서 누수가 발생할 때마다 보험금을 지급해 주었는데, 박진철은 누수 이후 방수공사를 하고, 인테리어 공사도 여러 차례 진행했는데, 여전히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 누수로 인해서 아끼는 가구도 상하고 장판도 여러 차례 교체했다.



특히 딸이 강력한 대응을 요청하고 있어서 박진철은 소송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박진철은 누구에게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누수 관련 문제는 가급적 소송이나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편이 좋다.

크게 세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누수라는 현상은 항상 발생하는 것이 아니어서 누수 현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또, 비가 얼마나 오냐에 따라서 누수가 발생하기도 하고 안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서 해당 내용을 입증하려면 누수가 발생할 때에 시간과 장소가 바로 표시되는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을 해두어야 한다.

둘째로, 누수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구체적으로 건물 중 어느 부분에 원인이 있는지 이 누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느 부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수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면 불필요하게 시간과 비용만 낭비하게 된다. 그래야 소송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고, 상대방에게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지도 정해지기 때문이다.

셋째로, 누수 피해로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전문가에 의한 감정으로 확인되어야 하는데, 감정료가 상당히 발생하고, 감정을 하더라도 누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액이 피해자가 바라는 것에 비해서 적게 인정될 수 있다.

그래서 누수 피해가 발생하면 일단 믿을만한 누수탐지 업체를 통해서 정확한 원인 규명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정확한 원인 규명 후에 누수 발생 원인이 2층 전유부분 하자로 인한 것인지, 혹은 건물 전체 공용부분(천장, 배관 부분)인지에 따라 소송의 대상이나 유형이 달라질 수 있다.

> “
> 누수 분쟁은 성급한
> 소송보다 정확한 원인 규명이
> 먼저다. 원인에 따라 책임 주체를
> 정하고 적절한 법적 대응을
> 해야 한다.
> ”

만일 누수의 원인이 2층 전유부분에 있는 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2층 소유자 성한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성한수가 원인 조사를 위한 출입이나 보수 공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에는 ‘전유부분 출입 허용 및 수리 이행 청구(가처분)’ 형태로 대응해볼 수 있다.

반면, 누수의 원인이 2층 전유부분이 아닌 공용부분의 하자라면 다세대 주택 구분소유자 전원, 집합건물 관리단을 상대로 소송이 필요할 수 있다.

박진철은 법률 전문가로부터 섣부른 소송이 안겨줄 감정 비용 부담과 입증의 리스크를 조언받고, 일단 정확한 탐지부터 다시 시작했다. 그 결과 빗물이 스며드는 원인을 찾아내어 관리단(또는 매도인·윗집)과의 원만한 협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적절한 시기에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은 덕분에 불필요한 소송 비용을 아끼고 문제를 실효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

글 **주상은**

現 원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변호사. 재개발, 재건축 부동산 및 건설 전문 변호사로서, 수용재결, 손해배상 등 다양한 민사사건을 다룬다.

저는 왜 이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할까요?

낡은 습관에서
벗어나
홀로 당당하게,

함께 따뜻하게
살아가는
삶의 지혜

왜 늘 막연한 불만족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헤어진 사람을 오래도록 잊지 못해 계속 힘들어하는 이유는 뭘까. 가족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되는 걸까.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는 왜 그 죽음을 자기 일처럼 받아들이지 못할까.

살다 보면 누구나 답이 나지 않는 질문 앞에서 오랜 밤낮을 기울여 본 적이 있을 테다. 혼자 붙들고 씨름해 봐도, 가까운 주변 사람들에게 털어놓아도 속 시원한 답을 듣기는 쉽지 않다. 그럴 때 우리는 자연스레 나보다 조금 앞서 인생을 살아간 이에게, 사람의 마음을 오래 들여다본 이에게 묻게 된다.

"저는 왜 이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할까요?"

이 책은 사마타·위빠사나 수행 도량인 〈붓다선원〉에서 진경 스님과 여러 수행자들이 나눈 실제 문답을 담았다. 어린 시절의 상처, 사랑과 이별의 아픔, 술과 담배 같은 중독의 문제, 직장생활의 어려움처럼 누구나 한 번쯤 마주하는 현실적인 고민부터 기도는 왜 하는지, 세상은 왜 이렇게 불공평하기만 한지, 죽음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와 같은 근원적인 질문까지 폭넓게 다룬다.

그리고 그들에게 전하는 스님의 답변은 단순한 위로나 조언에 머물지 않는다. 그 대신 괴로움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살피며, 문제를 없애려 하기보다 문제를 만들어 내는 마음을 바라보도록 이끈다.

우리는 흔히 고통이 밖에서 온다고 생각한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상황 때문에 괴롭고, 운이 없어서 불행하다고 여긴다. 그러나 진경 스님은 괴로움의 원인이 삶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말한다. 즐거움이 영원하기를 바라거나 고통이 빨리 사라지기를 바라는 등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마음, 그리고 끊임없이 변하는 몸과 마음을 '나'라고 붙드는 순간 삶은 자꾸만 우리를 아프게 만든다는 것이다.

몸과 마음 역시 잠시 인연이 모여 이루어진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여러 부품이 모여 자동차가 움직이듯 우리의 삶 또한 수많은 조건이 만나 잠시 드러난 흐름이다. 따라서 붙잡으려 하거나 밀쳐 낼 필요가 없다. 인연이 바뀌면 자연스레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 사실을 깊이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나'라는 좁은 틀에서 조금씩 벗어나 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고 스님은 말한다.

이 책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메시지는 인과(因果)의 지혜다.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반드시 원인과 조건이 있다. 그렇기에 지금의 고통도 이유 없이 찾아온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체념하라는 뜻도 아니다. 원인을 이해하면 삶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과보는 피할 수 없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 경험은 삶을 무너뜨리는 짐이 아니라 자신을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진경 스님은 고통을 없애려고만 하지 말고, 그 안을 찬찬히 들여다보라고 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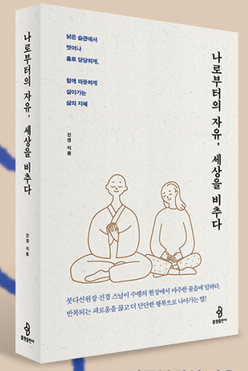
물론 자신의 아픔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일은 쉽지 않다. 하지만 질문을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품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 질문이 내 삶을 이해하는 소중한 열쇠가 된다. 우리를 괴롭히던 물음이 어느새 우리를 성장시키는 물음으로 바뀌는 것이다.

부처님의 깨달음도 하나의 질문에서 시작되었고, 진경 스님의 수행 역시 수없이 묻고 살피는 과정 위에서 깊어졌다.

지금 당신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질문은 무엇인가. 혹시 그것을 '나'라고 단단히 부여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영원하기를 바라거나, 반대로 빨리 사라지기만을 바라는 마음이 숨어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책에 담긴 마흔여섯 편의 문답을 따라가다 보면 답은 멀리 있지 않았음을 자연스레 발견하게 된다. 모든 문제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 마음을 한 호흡 고르며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조금씩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다.





나로부터의 자유, 세상을 비추다
저자_진경

글 불광미디어

DUMC NEWS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환자경험평가', 서울 · 경기 수도권 1위, 전국 종합 5위, 간호사 영역 전국 1위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시한 2025년(5차) 환자경험평가에서 서울 · 경기 수도권 1위, 전국 종합 5위를 기록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간호사 영역에서는 전국 1위에 오르며 환자가 직접 체감한 의료서비스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환자경험평가는 입원환자가 의료진의 존중과 배려, 의사소통, 환자안전 등을 평가하는 국가 단위 지표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종합점수 95.78점으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으며, 간호사 영역 전 항목에서 97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백용해 병원장은 "환자가 직접 인정해 준 결과라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며 "앞으로도 불교정신을 바탕으로 자비와 생명존중의 의료를 실천하며 더욱 신뢰받는 병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개방형실험실 부단장 남기창 교수, 제19회 의료기기의 날 대통령 표창 수상

동국대학교일산병원 개방형실험실 부단장 남기창 교수가 제19회 '의료기기의 날' 기념행사에서 의료기기산업발전 유공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남 교수는 의료기관 기반 의료기기 안전관리 체계 확립과 규제 개선, 정책 개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2011년부터 의료기기 안전정보 모니터링센터 운영에 참여해 의료기관 내 부작용 보고 활성화와 안전관리 문화 정착에 힘써왔으며, 대한의학회 혁신의료기술 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주요 위원회 활동을 통해 의료기기 분야 규제 개선에도 기여해왔다.

남 교수는 "의료기기 발전은 환자 안전과 의료현장의 혁신을 함께 이끄는 중요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안전한 의료기기 사용 환경 조성과 의료기기 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신생아중환자실 적정성 평가 1등급 획득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6월 30일 발표한 '2025년(4차) 신생아중환자실 적정성 평가'에서 종합점수 96점(종별평균 86.39점)으로 최우수 등급인 1등급을 획득했다. 이 평가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중증 신생아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심평원이 도입한 제도로, 4차 평가는 2025년 상반기 입원 진료분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특히 전담전문의 1인당 신생아중환자실 환자 수, 간호사 1인당 신생아중환자실 환자 수 등에서 평균을 웃도는 점수를 받으며 높은 수준의 진료환경과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을 입증하였다.

진단검사의학과, 우수검사실 신임인증 '매우 우수' 최고 등급 획득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진단검사의학과가 지난 6월 17일 진단검사의학재단이 실시한 우수검사실 신임인증 심사에서 최고 등급인 '매우 우수' 평가로 2년 인증을 획득했다.

이번 심사는 검사실 운영 · 진단 혈액 등 12개 분야를 대상으로 업무 지침, 인력, 환경, 안전관리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2005년 개원 이후 13회 연속 '매우 우수' 등급을 획득하며 최고 수준의 검사실 운영 역량을 입증했다. 20여 년간 단 한 차례도 최고 등급을 놓치지 않은 것은 체계적인 관리와 지속적인 노력이 만들어낸 성과로 평가된다.



급성기뇌졸중 적정성 평가 1등급 획득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7월 30일 발표한 '11차 급성기뇌졸중 적정성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1등급을 획득했다.

이번 11차 평가는 2024년 10월부터 2025년 3월까지 급성기뇌졸중으로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전국 종합병원급 이상 268개 기관에서 진행됐다. 평가는 인력 · 장비 · 시스템 등 구조, 진료 과정, 치료 결과 3개 영역으로 이뤄졌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종합점수 96.26점으로 종합병원 평균 점수 88.22점을 크게 상회했으며, ▲Stroke Unit 구성 여부 ▲병원 도착 60분 이내 정맥 내 혈전용해술 실시율 ▲조기재활 평가 · 실시율 ▲기능평가 실시율 ▲입원 중 폐렴 발생률 및 30일 이내 사망률 등 전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몽골 SOD그룹과 지정병원 협약 체결

동국대학교일산병원과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은 지난 7월 24일 몽골 울란바토르를 방문해 SOD Mongol Group과 지정병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백용해 동국대학교일산병원장과 김동일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장을 비롯해 SOD그룹 아난드바자르 회장, 친부렌 전 몽골 보건부 장관 등 양 기관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의료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약은 SOD그룹 임직원과 관계자의 건강관리 및 진료 편의를 지원하고, 몽골 현지 환자의 국내 진료 연계 등 양 기관 간 의료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6년도 수련환경평가 완료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이 2026년도 수련환경평가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평가는 전공의 수련환경과 교육과정 운영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으로, 수련전문과목 지정기준, 근무환경, 교육과정 운영 등을 평가했다. 각 진료과와 관련 부서는 지도전문의 현황, 진료 실적, 수련시간 관리, 교육과정 운영 등 평가 항목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전 과정을 원활하게 마무리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앞으로도 우수한 수련환경 조성과 전공의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간호부 PEM 위원회, '환자의 마음을 여는 간호, 3-Pre(미리)' 캠페인 전개

동국대학교일산병원 간호부 PEM위원회는 '환자의 마음을 여는 간호, 3-Pre(미리)'를 주제로 환자경험 향상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처치예고, 시간안내, 경과설명'을 핵심으로, 환자와 보호자에게 치료 과정을 미리 설명하고 안내함으로써 불안과 궁금증을 줄이고 의료진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간호부 PEM위원회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환자 중심 간호문화를 정착시키고, 환자의 입장에서 공감과 배려를 실천하는 따뜻한 의료서비스를 이어갈 계획이다.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전등사 이주민 문화축제에서 의료봉사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은 지난 6월 7일 강화 전등사에서 열린 제21회 이주민 문화축제 '아시아는 친구'에 참여해 한방 의료봉사 활동을 펼쳤다.

이번 의료봉사는 의료 혜택에서 소외되기 쉬운 외국인 노동자와 이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동일 병원장을 비롯한 한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은 현장을 찾아 진료 상담과 침 치료, 한방의약품 제공 등 다양한 한방 의료서비스를 실시했다.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은 앞으로도 의료 나눔을 지속하며 자비의료 실천에 앞장설 계획이다.



동국대학교경주병원 동국대학교경주한의원

환자 중심 의료 우수성 입증, '환자경험평가' 경북 유일 1등급 획득

동국대학교경주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제5차 환자경험평가에서 경북 지역 종합병원 중 유일하게 최고등급인 1등급을 획득하며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동국대학교경주병원은 의료진과 환자 간의 원활한 소통과 환자 중심 진료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며, 환자의 권리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신뢰받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환자가 치료 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진료환경 조성과 환자 만족도 조사, 의료서비스 질 향상 활동을 통해 환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있다.

이동석 병원장은 "이번 성과는 모든 교직원이 환자 중심 의료를 실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신뢰받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을 대표하는 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종 감염병 대응 모의훈련 실시

동국대학교경주병원은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기관으로서 신종 · 유행성 감염병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유행성(신종) 감염병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은 에볼라 의사환자 발생 상황을 가정해 환자 접수부터 음압격리실 이송,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까지 전 과정을 점검했으며, 의료진을 대상으로 운영 교육과

개인보호구(Level D) 착 · 탈의 훈련도 함께 진행했다. 이를 통해 부서 간 협업체계와 비상 대응 절차를 점검하고 실제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한층 강화했다.
이동석 병원장은 "신종 감염병은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실제 상황을 반영한 반복 훈련을 통해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빛버들회, 월정사 의료봉사 진행

동국대학교경주병원 빛버들회는 지난 8월 1일부터 2일까지 강원도 평창군 오대산 대한불교 조계종 제4교구 본사 월정사를 찾아 의료봉사를 실시했다. 이번 봉사는 하안거 결제를 앞둔 수행 대중스님들과 불자 50여 명을 대상으로 의료봉사와 의약품 공양을 진행했다. 20여 명의 의료진은 의료 접근이 어려운 수행 환경에 있는 스님과 불자들을 위해 건강상담, 혈압 · 혈당 측정, 한방 침 치료, 물리치료 등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지도법사 혜능스님은 "불교종립병원으로서 수행 정진하는 스님들이 계신 선원에서 의료봉사와 의약품을 공양하는 것은 불법을 실천하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자비를 실천하는 의료봉사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 개소 1주년 기념식 개최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는 개소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의 운영 성과를 돌아보고, 말기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해 온 의료진과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한의의료기관 입원형 호스피스 이용 환자를 대상으로 한 최초의 후향적 연구인 침구과 성원석 교수의 '한방병원의 입원형 호스피스 환자에 대한 임상적 특성과 이용 양상에 대한 후향적 차트 리뷰」 논문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진 기념식에서 김근우 병원장은 "다양한 돌봄 프로그램을 통해 환자 중심의 전인적 돌봄 체계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며, 이미숙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장은 "환자의 존엄한 삶을 지키고 따뜻한 돌봄을 실현하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조의 효심 깃든 용주사로 2026년 사찰순례 다녀와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은 지도법사 보경스님의 지도 아래 병원장과 불자모임 '마니회' 회장, 교직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성 용주사를 찾아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는 사찰순례를 진행했다.
이날 용주사 주지 성효스님은 법문을 통해 "환자와 자신을 위해 끊임없이 수행하고 희생하라"는 가르침을 전했으며, 김근우 병원장은 "의료인으로서 늘 가슴에 새겨야 할 말씀"이라며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모든 일정을 마친 뒤 보경스님은 "병원을 벗어나 모처럼 마음의 여유를 갖고 뜻깊은 시간을 보냈기를 바란다"고 격려하며 순례를 회향했다.
이번 사찰순례는 교직원들이 불교정신을 되새기고 화합과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2026 통증 캠페인으로 통증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세우다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는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통증, 참지 말고 말씀하세요'를 주제로 통증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암성 통증과 만성 통증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높이고, 통증은 참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입원 환자와 내원객을 대상으로 통증 관련 OX 퀴즈를 진행하고, 통증 관리 및 호스피스완화의료 정보를 담은 리플릿과 병원 기념품을 배부했다.
이미숙 센터장은 "환자와 보호자들이 통증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캠페인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play • dongguk

더 가까이, 더 생생하게 만나는 동국대학교병원

건강 상식과 질환 정보를 알기 쉽게 전하는 의료 콘텐츠, 병원의 다양한 소식과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동국대학교의료원 유튜브가 여러분의 일상에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불편한 다리 하지정맥류

심장혈관흉부외과
최 민 석 교수



알레르기비염, 약으로 완치될 수 있나요?

이비인후과
김 진 엽 교수



오십견으로 오해할 수 있는 회전근 개 질환

정형외과
박 주 현 교수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월경통, 한방으로 잡자

한방여성의학과
김 동 일 교수



디스크, 한약 건강보험 적용

한방재활의학과
김 호 준 교수



한방 보약으로 뇌혈관질환 치료와 예방을

한방내과
최 동 준 교수

더 많은 영상은 동국대학교의료원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건강한 오늘을 함께 하세요!

동국대학교의료원

Together • dongguk

여러분과 함께하는 길(GIL)

여러분의 생각과 이야기가 동국대학교병원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듭니다.
퀴즈에 참여하고, 의견을 나누고, 감사와 칭찬을 전해 주세요.

퀴즈

병원을 처음 방문하면 접수 절차부터 진료과 위치, 검사실 이동까지 모든 과정이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이러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 '(　　) 전용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담 직원이 접수와 진료 절차를 안내하고 병원 이용 전반을 친절하게 상담하며, 전용 목걸이를 착용한 환자에게는 교직원들이 먼저 다가가 필요한 도움을 제공합니다. 환자가 보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하는 서비스입니다.
(　　)의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의견

초등학생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지난호 아이들의 건강 관련 기사를 관심 있게 읽었습니다. 아이가 아프면 부모는 어떻게든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마음에 조급해지기 쉬운데, 부모가 먼저 마음의 안정을 찾고 건강을 지켜야 아이도 꾸준히 치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특히 기억에 남았습니다. '부모의 안정이 곧 아이의 안정'이라는 말이 큰 위로가 되었고, 의사 선생님을 믿고 아이와 함께 천천히 걸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부모의 마음까지 보듬어 주는 따뜻한 건강 이야기를 많이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민★ 님

칭찬

저는 2021년 진료와 수술을 계기로 이채형 교수님을 처음 뵙게 되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언제나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따뜻하게 살피시며 진심 어린 배려로 큰 신뢰와 희망을 전해주십니다. 바쁜 진료 현장에서도 늘 환자를 먼저 생각하시고, 주말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교수님을 만나 치료받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고, 많은 환자들이 교수님을 존경하며 찾는 이유도 그 따뜻한 진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덕분에 많은 환자들이 건강과 웃음을 되찾고 있습니다. 늘 건강하시어 오래도록 환자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조금★ 님

퀴즈의 정답, 다양한 의견, 칭찬글을 작성하여 참여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지난호 퀴즈 정답 : 소아바른성장센터　　정답자 : 홍인★

- 참여 내용과 이름, 전화번호를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sokuon@dumc.or.kr)
- 퀴즈 / 의견 / 칭찬 중 택 1 참여 가능합니다.
- 퀴즈 정답 및 선정된 내용은 다음 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 공덕

충북 음성 미타사, '땅 한 평의 원력' 신관건립기금으로 1억 원 보시 회향

충북 음성 미타사는 지난 5월 14일 사부대중의 정성을 모아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신관건립기금 '땅 한 평의 원력' 불사에 1억 원을 보시하며 자비의 의료불사 원만회향을 발원했다. 이번 보시는 주지 희원스님과 사부대중의 뜻이 함께한 동참으로, 생명을 살리는 자비의 의료불사에 힘을 보탰다.
희원스님은 "'땅 한 평의 원력'은 생명을 살리는 자비의 불사"라며 신관건립불사가 원만히 회향돼 더 많은 중생에게 치유와 희망을 전하는 도량이 되기를 발원했다.
미타사 사부대중도 작은 원력이 큰 공덕으로 이어져 모두의 병원을 세우는 든든한 기반이 되기를 기원했다.

(재)법보선원, 로봇수술센터 구축기금 1억 원 기부

(재)법보선원은 지난 6월 3일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의 발전과 자비의료 실현을 위해 로봇수술센터 구축기금 1억 원을 기부했다. 이는 올해 1월 2억 원, 2월 1억 원에 이어 세 번째 보시로, 송담 큰스님과 사부대중의 원력이 담긴 뜻깊은 동참이다.
(재)법보선원은 로봇수술센터 구축을 위해 총 40억 원을 약정했으며, 현재까지 38억 원을 보시하며 병원의 첨단 의료 인프라 구축과 자비의료 실현을 지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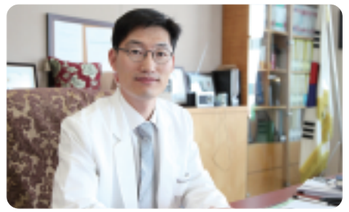
운문사 회주 명성스님, '땅 한 평의 원력' 신관건립불사 동참

청도 운문사 회주 명성스님은 지난 6월 24일 동국대학교일산병원 기부자 라운지에서 '땅 한 평의 원력' 신관건립기금 1,080만 원(10평)을 수희 동참했다.
이번 보시는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이 추진하고 있는 '땅 한 평의 원력' 신관건립불사에 동참하기 위한 것으로 명성스님은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환경과 치유 공간을 제공하고 미래 100년을 향한 병원의 새로운 도약에 힘을 보태고자 소중한 정재를 회향했다.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김동일 병원장, 한방병원 발전기금 1천만 원 기부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김동일 병원장은 지난 5월 20일 한방병원의 발전과 생명존중 의료 실천을 위해 발전기금 1천만 원을 기부했다. 발전기금은 한방병원 탕전실 현대화와 진료장비 구입에 사용돼 보다 안전하고 수준 높은 진료환경 조성에 쓰일 예정이다.
김동일 병원장은 "작은 정성이 한방병원의 의료환경 개선과 의료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고, 생명치유의 도량으로 더욱 발전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힙부즈' 손묘경 대표 부부, 발전기금 매년 100만 원 정기 기부 동참

젊은 불자 기업인인 힙부즈 손묘경 대표와 이대욱 작가 부부는 지난 7월 10일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의 생명존중 의료와 자비의료 실천에 뜻을 보태고자 병원 발전기금 100만 원을 기부했다. 평소 다양한 사회공헌과 나눔을 실천해 온 두 사람은 부처님의 자비행에 동참하고자 보시했으며, 생명을 살리는 불교병원의 역할에 공감해 앞으로도 매년 100만 원씩 정기기부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언제나 동국대학교병원을 지켜봐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기부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간 : 2026. 5. 1. ~ 2026. 7. 31]

(재)법보선원	100,000,000
대한불교조계종 미타사	100,000,000
형문스님	100,000,000
대한불교조계종 전등사	54,000,000
대능스님	50,000,000
김국종	20,000,000
유정스님	20,000,000
이위재	20,000,000
백수활	15,000,000
(주)아라니아	15,000,000
영안스님	15,000,000
서운스님	13,000,000
故 정묵스님 영가	11,000,000
유성규	11,000,000
담교스님	10,800,000
동언스님	10,800,000
명성스님	10,800,000
성범스님	10,800,000
성행스님	10,800,000
안삼월	10,800,000
인하스님	10,800,000
혜경스님	10,800,000
김동일	10,030,000
대영스님	10,000,000
신우스님	10,000,000
정안스님	10,000,000
도원스님	5,550,000
능관스님	5,400,000
선본스님	5,400,000
원학스님	5,400,000
희성스님	5,000,000
김진영	3,740,000
백용해	3,430,000
지혜스님	3,000,000
김미화	2,190,000
박병희	2,160,000
임양순	2,160,000
최주환	2,160,000
원담스님	2,000,000
일초스님	2,000,000
(주)한국에스웨이	2,000,000
홍순지	2,000,000
이해원	1,860,000
권범선	1,580,000
하형근	1,580,000
김다희	1,500,000
동국대학교경주병원	1,500,000
메디비	1,500,000
이명규	1,500,000
(주)정진코퍼레이션	1,500,000
박완임	1,440,000
대한불교조계종 천보사	1,380,000
성낙진	1,300,000
박순금	1,230,000
인득스님	1,230,000
황영철	1,230,000
김수진	1,180,000
고금자	1,170,000
선영스님	1,170,000
선혜스님	1,170,000
이명희	1,170,000
전용화	1,170,000
지해스님	1,170,000
영인스님	1,140,000
임재선	1,140,000
황원진	1,140,000
故 조용호	1,130,000
故 박야임	1,110,000
보인스님	1,110,000
故 오기남	1,110,000
이찬순	1,110,000
황설희	1,110,000
황용선	1,110,000
도윤스님	1,100,000
탄성스님	1,100,000
고다솔	1,080,000
고영선	1,080,000
고한솔	1,080,000
김선미	1,080,000
김선영	1,080,000
김옥순	1,080,000
김정기	1,080,000
김지애	1,080,000
김지은	1,080,000
대한불교조계종 거조사	1,080,000
대한불교조계종 서응사	1,080,000
덕원스님	1,080,000
도서출판 선연	1,080,000
도영스님	1,080,000
박미영	1,080,000
박원춘	1,080,000
배정민	1,080,000
백숙희	1,080,000
법인스님	1,080,000
세광스님	1,080,000
손강숙	1,080,000
아리랑쌈밥 본점	1,080,000
아산크레인	1,080,000
원상스님	1,080,000
유태온	1,080,000
유형진	1,080,000
윤현식	1,080,000
이기호	1,080,000
이명아	1,080,000
이명주	1,080,000
이용섭	1,080,000
임지현	1,080,000
정균옥	1,080,000
정안스님	1,080,000
정현스님	1,080,000
정호스님	1,080,000
조중문	1,080,000
청명스님	1,080,000
청양 안심사 보현회	1,080,000
청욱스님	1,080,000
향광스님	1,080,000
황진숙	1,080,000
김요상	1,000,000
(주)두잉씨앤에스	1,000,000
박종화	1,000,000
손묘경	1,000,000
신일기획	1,000,000
(주)유진메디텍	1,000,000
윤재웅	1,000,000
장윤스님	1,000,000
정혜윤	1,000,000

(단위 : 원)

100만원 미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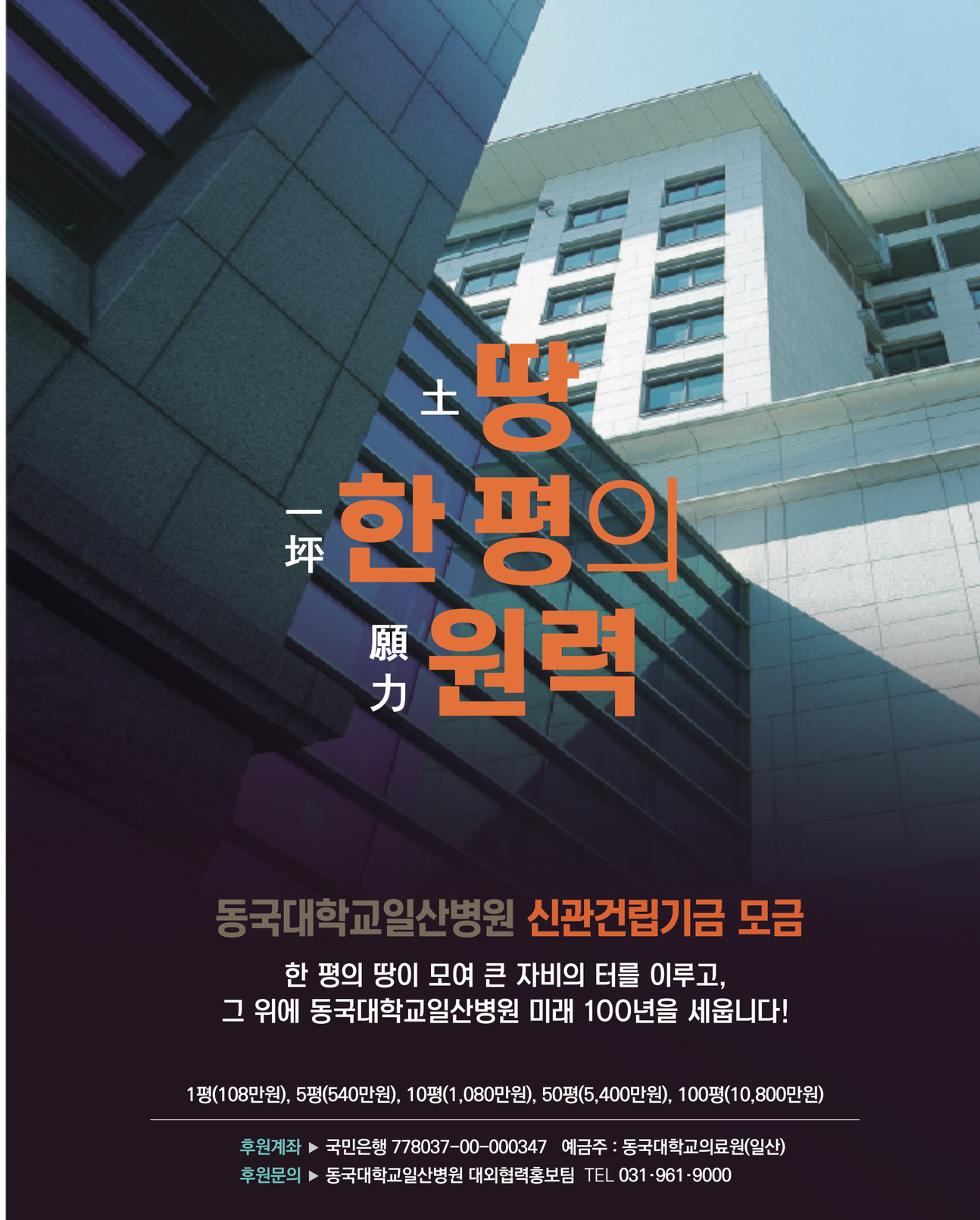
가산스님
각무스님
감로수
강경민
강경임
강금주
강대수
강명숙
강명희
강민정
강석진
강선영
강성희
강세연
강시우
강연주
강은석
강이일
강인자
강지영
강태양
강현우
강혜진
경륜스님
경보호
경은스님
경조스님
경주농협 공판장33번
경주농협 하나로마트
경풍약품
경희스님
계림운수
고기환
고담호
고명선
고완영
고재옥
고지현
고현스님
공영화
공자윤
공학배
곽범석
관음정사
관정스님
관진스님
구남이
구도환
구병수
구복심
구순점
국군고양병원
권경순
권기현
권나은
권대식
권도윤
권도화
권두경
권명조
권명희
권민
권병철
권삼숙
권성옥
권순원
권영자
권오성
권용길
권용순
권용태
권일진
권재구
권재영
권정순
권정애
권태용
권태형
권형태
권훈열
권희경
권희재
금주스님
길정은
김가빈
김가영
김강림
김강태
김경숙
김경숙
김경옥
김경은
김경자
김경택
김경호
김경희
김경희
김광기
김광오
김국현
김권수
김귀연
김귀출
김규린
김규빈
김규환
김균명
김근우
김근형
김기연
김나연
김남수
김남숙
김남희
김다영
김다원
김다인
김단혜
김대식
김대식
김덕희
김도연
김도연
김도현
김동욱
김동하
김동현
김륜하
김매화
김명숙
김명숙
김명희
김명희
김무종
김문식
김문희
김미경
김미경
김미경
김미숙
김미영
김미자
김미형
김민경
김민경
김민규
김민성
김민정
김병옥
김병진
김병환
김보성
김보은
김복주
김삼기
김상규
김상근
김상록
김상애
김상철
김서율
김석호
김선경
김선순
김선주
김선주
김선희
김성겸
김성도
김성엽
김성원
김성환
김세희
김소라
김소연
김소원
김솔아
김수동
김수성
김수연
김수정
김수헌
김수희
김숙경
김숙달
김순덕
김순덕
김순례
김시연
김연수
김연화
김영남
김영미
김영미
김영민
김영복
김영숙
김영애
김영자
김영진
김영현
김영혼
김예경
김용배
김용섭
김용숙
김용환
김용희
김원교
김윤하
김은경
김은미
김은재
김은정
김은정
김은지
김은진
김은희
김의정
김의현
김익환
김인숙
김인순
김인영
김임숙
김재나
김재은
김정미
김정미
김정배
김정선
김정섭
김정수
김정애
김정형
김정혜
김정훈
김종갑
김종대
김종애
김주현
김지연
김지예
김지원
김지인
김지현
김지혜
김지혜
김진영
김진용
김진욱
김진형
김찬우
김창기
김철
김철주
김춘조
김태경
김태련
김태영
김태윤
김태은
김하겸
김한성
김해정
김현경
김현구
김현규
김현서
김현정
김현준
김형준
김혜숙
김혜정
김혜정
김혜진
김혜진
김호윤
김호준
김홍기
김홍식
김환례
김효빈
김효주
김효진
김희경
김희동
김희선
김희영
김희진
나경란
나경스님
나득영
나이스인프라
주식회사 남상용
남유화
남정애
남지형
남현미
남현숙
노경란
능지스님
(주)다인이엔씨
담원스님
대공스님
대과스님
대엽스님
대원스님
대한불교 조계종 법련사
대한불교 조계종 보혜사
대한불교 조계종 본원사
대한불교 조계종 봉덕사
대한불교 조계종 장안사
대한불교 조계종 용주사
대한불교 조계종 지장선원
대한불교 천태종 대광사
덕업스님
덕진스님
도견스님
도과스님
도명스님
도민스님
도선스님
도일스님
도진스님
도형수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불교회
동녕사
동림떡집
동성스님
동심모금함
동진스님
드림네트워크
(주)디에스메디피아
(주)래브로루미너스
류경현
류대안
류봉하
류성환
류완하
마루컨설팅
마의자
만불선원
명수스님
명순정
명심스님
명은스님
명환스님
모성은
모종은
묘수스님
묘전스님
묘희스님
무관스님
무구스님
무진스님
무진스님
문규선
문수진
문순임
문장우
문진웅
문효남
미래전기조명
민상연
밀엄스님
박경문
박경숙
박계숙
박관
박근우
박기현
박나현
박대호
박동우
박동진
박동화
박미순
박미형
박민성
박석원
박성미
박성주
박성파
박세진
박세환
박수련
박수연
박수혁
박수희
박시은
박신선
박신애
박애자
박영민
박옥석
박원예
박위출
박유진
박은동
박은애
박은영
박이창
박장신
박재근
박재숙
박재영
박전채
박정민
박정애
박정애
박정자
박정화
박종욱
박종학
박주현
박준자
박중희
박지영
박지현
박지우
박철근
박청호
박해련
박향미
박현강
박현숙
박현식
박현식
박현주
박효빈
박효진
반공스님
방동률
배기향
배민지
배상만
배서영
배수현
배용길
백서연
백승진
백유진
백윤정
백준엽
범선스님
법륜스님
법명스님
법정스님
법진스님
법천스님
법해스님
변주호
변효민
보경스님
보경스님
보관스님
보관스님
보광스님
보리수
본각스님
봉만스님
부경스님
부동스님
부안리
삼혜스님
상오스님
새한산업
서경주
서무황
서미경
서보열
서연희
서영문
서영완
서영진
서은지
서준
서지원
서지원
서찬
서청현
서혜영
석도스님
선경스님
선도스님
선보스님
선오스님
선우스님
선일스님
선재스님
선효스님
성관스님
성광스님
성덕스님
성범스님
성본스님
성본스님
성수스님
성수현
성숙희
성심메디칼
성원석
성윤건
성은희
성진스님
성창훈
성학스님
성현스님
성화스님
성효은
세영스님
소림사
소선기
소연스님
소정자
소행연
손경옥
손귀득
손규동
손기원
손명숙
손명희
손민표
손영란
손영학
손재현
손주연
손주영
손창종
손채령
손태영
손효욱
손효정
손효진
송국현
송다영
송동현
송미영
송보윤
송운스님
송운호
송주익
송창숙
송호우
수근스님
식객촌
신경근
신경민
신경수
신능인
신대규
신명숙
신명애
신명진
신석재
신성숙
신성정보기술
신성현
신수연
신윤주
신은재
신은정
신은희
신정용
신학녀
신현모
신형신
신호갑
신호진
신희정
심규용
심규진
심미나
심영경
심영희
심용완
쌍계사
쌍용씨앤이(주)
안대승
안도화
안선영
안숙자
안영길
안인숙
안주향
안지은
안창현
안향옥
안혜정
안희연
양광영
양오남
양원준
양유리
양인숙
양재준
엄희경
(주)에콘바이오
여영스님
여옥스님
여현스님
연규스님
연지떡집
염윤정
염주홍
오경섭
오금남
오명옥
오미정
오민석
오성은
오수진
오영선
오윤주
오인숙
오지아
오지윤
오진숙
오치훈
오태웅
옥천암
(주)올파인
용인스님
우경량

우경스님
우덕스님
우동성
우점순
우종만
우종훈
운아스님
원공스님
원명사
원선혜
원용문
원유한
원해스님
유경자
유광옥
유기용
유로메딕스
유리예
유미숙
유서영
유석현
유영순
유영철
유유상
유정임
유정화
유주형
유지영
유현숙
유형주
유혜연
육손운수
윤금섭
윤기화
윤미애
윤민아
윤병하
윤복연
윤봉열
윤성스님
윤성현
윤성혜
윤수임
윤수현
윤순선
윤승환
윤영준
윤정림
윤정호
윤정희
윤종화
윤태호
윤해서
윤혜진
윤효영
은종렬
이경미
이경민
이경순
이경신
이경원
이경자
이경택
이경환
이경희
이관용
이광훈
이구슬
이규엽
이기영
이길연
이나현
이남정
이다영
이도권
이도현
이동영
이동욱
이동현
이명숙
이명순
이명혜
이무화
이문정
이문희
이문희
이미수
이미수
이미숙
이미향
이민정
이병기
이병훈
이보영
이복례
이상년
이상숙
이상암
이상영
이상현
이상형
이상훈
이서현
이선아
이선희
이설희
이세임
이소영
이소정
이소해
이송이
이수지
이승욱
이승주
이승진
이승철
이시훈
이애영
이양노
이양희
이연서
이연희
이영건
이영미
이영미
이영숙
이영실
이영아
이영애
이영일
이영찬
이영훈
이예린
이예슬
이오순
이용미
이용우
이용찬
이용필
이용희
이우섭
이원찬
이유나
이윤미
이윤하
이은미
이은자
이은정
이은주
이자경
이재순
이재연
이재욱
이재환
이재훈
이정민
이정백
이정숙
이정스님
이정우
이정은
이정현
이정화
이정희
이종철
이주영
이주현
이주현
이주희
이주희
이준길
이준엽
이준우
이지숙
이지영
이지영
이지우
이지원
이지현
이지호
이진
이진권
이진희
이창실
이채원
이춘자
이충진
이태우
이태현
이학수
이한희
이해우
이향년
이향미
이향지
이헌우
이현복
이현숙
이현아
이현주
이현주
이현창
이형경
이혜근
이호준
이효정
이희영
이희지
인관스님
인승순
인준용
일진스님
일청스님
임군일
임동하
임명숙
임병열
임상혁
임선희
임성우
임수아
임윤정
임재범
임정숙
임종대
임창금
자광스님
자광스님
자선스님
자윤스님
자이언트파마
장대현
장동철
장미란
장상영
장세류
장순도
장영숙
장유민
故 장윤매
장윤정
장인순
장정화
장지순
장진호
장충섭
장태영
장현지
장호근
재오스님
전경숙
전솔이
전수진
전숙진
전순영
전아정
전원용
전희경
정경윤
정경철
정공스님
정관스님
정기스님
정길석
정길형
정남교
정목스님
정미라
정미라
정미선
정보욱
정석화
정선희
정세진
정소스님
정수스님
정순효
정승우
정승택
정승현
정심스님
정연분
정영찬
정욱제
정원기
정원스님
정은경
정이선
정일스님
정재스님
정재우
정재헌
정정숙
정주스님
정준호
정지영
정지우
정지희
정진희
정하영
정한숙
정해숙
정혁수
정현경
정혜은
정혜주
정혜진
정화스님
정환스님
정휴스님
제아람
제희자
조갑자
조경애
조계환
조기환
조남희
조동삼
조동혁
조상현
조새미
조성만
조소영
조수진
조승호
조아라
조양자
조우리
조원복
조은주
조익준
조정아
조정아
조주연
조현선
조현순
조현우
조혜진
조희경
조희연
조희완
종인스님
종일스님
종찬스님
주경식
주경희
주상봉
주은명
주은빈
주혜스님
지광스님
지련스님
지묵스님
지연순
지용스님
지운스님
지유스님
지일스님
지현스님
진경스님
진경애
진묘스님
진묘스님
진상스님
진성스님
진성스님
진영숙
진용수
진우스님
진임자
진효재
차옥련
차행운
채영주
채은미
채은실
천수자
천지스님
최경아
최귀정
최금례
최명권
최무환
최문전
최미경
최민석
최민화
최병철
최보운
최복필
최상근
최상돈
최석예
최선식
최성룩
최성옥
최소영
최양순
최영범
최영자
최영진
최완우
최왕열
최원하
최원혁
최유림
최유안
최유정
최윤선
최은재
최은정
최은희
최은희
최익준
최인서
최인영
최인영
최인주
최인하
최인혜
최인환
최재원
최정미
최정민
최정민
최정숙
최정숙
최정현
최주하
최준용
최진영
최진헌
최창윤
최창익
최해성
최효선
최훈
최희원
케이디 메딕스
탄웅스님
탄정스님
탄하스님
편정숙
(유)파인트리푸드
표근종
표정연
하경임
하두식
하민영
하윤경
하일유통
하정희
하창원
하현지
한경선
한국메디칼푸드
한소라
한송이
한영호
한윤희
한은숙
한은숙
한정훈
한주아
한주형
한창호
한태웅
한희찬
해덕스님
해량스님
해주스님
행이스님
허강원
허성민
허승준
허은경
허정길
현견스님
현근스님
현담스님
현담스님
현문스님
현수스님
현수스님
현암스님
현우스님
현재호
현진스님
혜광스님
혜근스님
혜능스님
혜도스님
혜륜스님
혜성
혜안스님
혜연스님
혜원스님
혜일스님
혜준스님
혜철스님
호석스님
혼성스님
홍민재
홍민희
홍성희
홍성희
홍유실
홍은정
홍인스님
홍주혜
화응스님
환성스님
황귀자
황금숙
황기순
황대승
황민섭
황병선
황석환
황영지
황은선
황윤자
황은영
황인봉
황정선
황정수
효광스님
효성스님
흥수스님
희덕스님

외 다수 익명

여러분의 소중한 기부는 자비의료 실천의 큰 힘이 됩니다. 동국대학교병원 발전기금에 함께해 주세요.

후원 병원	은행/계좌	예금주	문의
동국대학교일산병원	국민은행 778037-00-000011	동국대학교의료원(일산)	031. 961. 9000
동국대학교일산병원(신관건립기금)	국민은행 778037-00-000347	동국대학교의료원(일산)	031. 961. 9000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국민은행 778001-00-059986	동국대학교의료원(일산)	031. 961. 9000
동국대학교경주병원·한의원	우리은행 1005-202-076965	동국대학교의료원(경주)	054. 770. 1501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	국민은행 368137-01-001162	동국대학교의료원(분당)	031. 710. 3795



동국대학교의료원은
생명존중과 자비의 인술로
부처님 법을 실천하겠습니다.

동국대학교의료원
dongguk university medical center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대표전화 1577. 7000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27

동국대학교경주병원
동국대학교경주한의원
대표전화 054. 748. 9300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동대로 87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
대표전화 031. 710. 3700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268

동국대학교의과대학
대표전화 054. 770. 2114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동대로 123

동국대학교한의과대학
대표전화 054. 770. 2114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동대로 123